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의학석사 학위논문

모렐 (Bénédict A. Morel: 1809–1873)의  
퇴행이론과 인간과학의 기획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대학 의학과 인문의학전공  
문기엽

모렐(Bénédict A. Morel: 1809–1873)의  
퇴행이론과 인간과학의 기획

지도 교수 김옥주

이 논문을 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대학 의학과 인문의학전공  
문기업

문기업의 의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원장 \_\_\_\_\_ 이승희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김옥주 \_\_\_\_\_ (인)  
위원 \_\_\_\_\_ 이규원 \_\_\_\_\_ (인)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의 정신과의사 모렐(Bénédict Augustin Morel: 1809-1873)이 제시한 퇴행(dégénérescence)이론이 등장하게 된 지적 배경을 살피고 이를 통해 모렐의 퇴행이론의 실천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다. 퇴행이론의 주된 요지는 인간의 여러 신체 및 정신질환의 원인은 퇴행에 있고, 퇴행은 세대를 거치며 악화되어 가며, 이는 대부분의 경우 불가역적이라는 데에 있다. 퇴행이론에 대한 모렐의 대표작 『인류의 신체적, 지적, 도덕적 퇴행, 그리고 이러한 악성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개론 (*Traité des dégénérescences physiques, intellectuelles et morales de l'espèce humaine et des causes qui produisent ces variétés malades*)』 (1857)에서 그는 신체 및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퇴행을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이 원인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퇴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의 원인분류체계의 한 축이었던 ‘복합 원인(cause mixte)’은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19세기 프랑스의 여러 환경적, 사회적 위생문제를 포괄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퇴행이론이 여러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고 인류의 신체적, 지적, 도덕적 영역에서의 ‘재생’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렐의 기획은 정신과의사와 마찬가지로 사회변혁에 적극적이던 19세기 전반기 기독교 사회주의자와 위생학자의 활동과 비교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학자들의 연구와 함께 고려해 본다면 모렐의 퇴행이론은 계몽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인간과 사회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던 ‘인간과학’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1848년 2월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의 진보에 대한 낙관적 열망은 사그라들어갔지만, 1857년 모렐의 퇴행이론은 그럼에도 낙관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다.

주요어 : 모렐, 퇴행, 퇴행이론, 인간과학, 위생학  
학 번 : 2018-29860

# 목 차

제 1 장 서 론 .....	5
제 2 장 인간과학의 전통 .....	16
제 1 절 혁명 이전의 인간과학 .....	16
제 2 절 국가 개입의 확대와 통계의 활용 .....	18
제 3 절 기독교 사회주의자 .....	19
제 4 절 19세기 전반기의 위생학 .....	23
제 5 절 정신의학과 그 한계 .....	31
제 3 장 모델의 『개론』 과 퇴행이론 .....	36
제 1 절 모델의 생애 .....	36
제 2 절 모델의 퇴행이론 .....	39
제 3 절 퇴행의 여러 원인들 .....	42
제 4 절 퇴행의 도덕적 원인 .....	53
제 5 절 복합 원인(cause mixte)과 인류학적 탐구 .....	57
제 6 절 직업환경과 도시의 퇴행 .....	61
제 7 절 인류의 재생 .....	65
제 4 장 결 론 .....	68
참고문헌 .....	73
Abstract .....	77

## 제 1 장 서 론

의학적 의미에서 ‘퇴행(혹은 퇴화)’은 프랑스어 ‘dégénérescence’ 혹은 영어 ‘degeneration’의 번역이다. 생물체의 해부병리학적 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퇴화라는 번역어가 적절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 논의하게 될 19세기 유럽, 특히 프랑스의 정신의학 및 위생학의 맥락에서 *dégénérescence*는 좁게는 개체단위의, 넓게는 집단 또는 종단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하기에 이러한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퇴행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추후 기술하겠지만 19세기 중반까지 프랑스 의학의 철학적 기반이었던 신체-도덕(physical-moral)<sup>12</sup>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현대적 의미의 퇴

---

<sup>1</sup> 19세기에 사용된 프랑스어 ‘moral’은 현대 한국어의 ‘도덕’과 일대일 대응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여기서 moral은 현대적으로 사용되는 ‘도덕’의 의미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영역 이외의 인간의 정신적 영역과 인류사회의 문화 및 습속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논문의 주요 탐구 대상이 될 모렐의 저서 『인류의 신체적, 지적, 도덕적 퇴행, 그리고 이러한 악성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개론 (*Traité des dégénérescences physiques, intellectuelles et morales de l'espèce humaine et des causes qui produisent ces variétés maladives*)』 (1857)의 제목에서 ‘신체적, 지적, 도덕적(physiques, intellectuelles et morales)’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저서에서 모렐은 도덕을 지적(intellectuel)이라고 부를 만한 것 이외의 인간의 정신활동과 인류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 글에서는 ‘moral’을 일괄적으로 ‘도덕’이라 번역할 예정이지만, 이 논문에서 등장하는 도덕이라는 용어가 전적으로 19세기 프랑스어 moral의 번역임을 독자들이 염두에 두고 글을 읽어 나가기를 바라는 바이다.

<sup>2</sup> 이 글에서 ‘moral’에 대응되는 ‘physical’이라는 단어는 맥락에 따라 ‘신체적’ 혹은 ‘물질적’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겠다.

화와 퇴행은 당시에는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에서 이해됐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퇴행이라는 용어를 번역어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중의 퇴행, 그 중에서도 인류의 퇴행에 대한 아이디어는 19세기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모렐(Bénédict Augustin Morel: 1809-1873)이 제시한 퇴행의 개념은 퇴행이론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sup>3</sup> (Dowbiggin, 1991: 118-120) 그의 퇴행이론은 1857년 출판된 저서 『인류의 신체적, 지적, 도덕적 퇴행, 그리고 이러한 악성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개론 (*Traité des dégénérescences physiques, intellectuelles et morales de l'espèce humaine et des causes qui produisent ces variétés maladives*)』 (이하 『개론』)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여기서 모렐은 프랑스 자연사학자 뷔퐁(Georges-Louis Leclerc, Comte de Buffon: 1707-1788)이 자연사학의 맥락에서 논의했던 인류의 퇴행에 관한 이론을 본격적으로 의학적 담론으로 끌어온다. (Coffin, 2003: 66-7) 그의 퇴행이론은 19세기 말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마냥(Valentin Magnan: 1835-1916)을 통해 프랑스 정신의학계에서 널리 연구되고 독일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그리징거(Wilhelm Griesinger: 1817-1868) 또한 퇴행이론에 대해 여러

---

<sup>3</sup> 인류의 도덕적 퇴행과 그 유전성, 그리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도덕 위생에 관한 18세기 프랑스의 논의에 대해서는 Quinlan, Sean M., "Inheriting vice, acquiring virtue: hereditary disease and moral hygiene in the medicine of the French Enlightenment,"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80 (2006), pp.649-675.를 참조할 것.

차례 다루는 등<sup>4</sup> 정신의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범죄와 도시빈민 문제 등 당대의 여러 사회문제가 다루어질 때에도 퇴행이론과 결부되어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다.<sup>5</sup> (Coffin, 2003: 8-10)

모렐이 『개론』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 종(種)에서 여러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일반적인 변이(déviations) 수준을 넘어서는 퇴행 (dégénérescence)<sup>6</sup>이 발생할 수 있으며, 퇴행의 정도는 자손세대를 거쳐 유전되면서 점차 악화되어 간다. 결과적으로 퇴행이 일어난 개체 혹은 집단은 신체적, 도덕적 문제로 인해 불임상태에 이르게 되어 자손을 남길 수 없게 된다. 퇴행의 증상은 그 촉발원인에 따라 구체적인 양상이 구분되며, 신체적, 지적, 도덕적으로 다방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모렐의 퇴행이론에서 특기할 만한 부분은 퇴행이론의 기저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

---

<sup>4</sup> 예를 들어 그리징거의 대표적 저작 『정신질환의 병리와 치료 (*Die Pathologie und Therapie der psychischen Krankheiten*)』 제3판에서 모렐의 퇴행이론은 정신질환의 유전적 특성을 다룰 때, 그리고 크레틴병의 특성에 대해 언급할 때 등장한다. (Griesinger, 1871: 155-161. 388, 397)

<sup>5</sup> 모렐은 『개론』에서 당대 프랑스 사회의 도덕과 ‘퇴행적 문화’와 그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Morel, 1857: 594-659) 사회의 문제를 인류 (특히 도시 노동자와 빈민)의 도덕적 타락의 원인을 퇴행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는 19세기 후반기에 더욱 활발하게 전개된다. 자세한 내용은 Nye, Robert A., *Crime, madness and politics in modern France: the medical concept of national declin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의 Chapter IV. Heredity or Milieu: The Born-Criminal Debate and the Foundations of Criminology, pp.97-131을 참조할 것.

<sup>6</sup> 모렐은 ‘악성변이(déviations malades)’라는 표현 또한 자주 사용한다. 그의 저서에서 악성변이라는 표현은 퇴행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다. 즉, 특정 개체 혹은 집단이 물질적, 도덕적인 이유로 인해 신이 창조한 인간의 완전한 형태로부터 퇴행되어 벗어나게 되면 인간은 신이 부여한 목적을 충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결국은 세대를 거치며 생식능력을 잃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Morel, 1857: 3-5)

모렐의 퇴행이론은 오랜 기간 역사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고 이와 관련된 직간접적 연구는 거듭 이루어져 왔다. 선행 연구들의 주제들을 대략적으로 나누어 보면, 우선 계몽 시대로부터 시작된 소위 ‘인간과학(science humaine 혹은 science de l’homme)’<sup>7</sup>의 기획의 맥락에서 퇴행이론을 이해하려는 연구들이 있었다.<sup>8</sup> 즉, 인간의 신체적, 도덕적 특성

---

<sup>7</sup> 인간과학(Human science 혹은 science of man)이라는 표현은 현재에도 간간히 쓰이지만, 이 글에서 의미하는 인간과학은 18세기 계몽시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인간의 신체적, 도덕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의 신체적, 도덕적 개선을 목표로 한 일련의 학문적 경향을 의미한다. 19세기 프랑스의 인간과학적 학문 사조는 ‘실증적’ 학문이 주류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19세기 중엽까지 지속되었다. (Quinlan, 2007: 124; Williams, 1994: 10) 19세기를 전후한 프랑스의 인간과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lliams, Elizabeth A., *The physical and the moral; anthropology, physiology, and philosophical medicine in France, 1750-18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를 참조할 것.

<sup>8</sup> 이러한 연구들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Hunt, Alan and Rimke, Heidi, “From sinners to degenerates: the medicalization of morality in the 19th century,”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15 (2002), pp. 59-88., Quinlan, Sean M., “Inheriting vice, acquiring virtue: hereditary disease and moral hygiene in the medicine of the French Enlightenment,”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80 (2006), pp.649-675., Quinlan, Sean M., *The great nation in decline: sex, modernity and health crises in Revolutionary France c, 1750-1850*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7). Williams, Elizabeth A., *The physical and the moral; anthropology, physiology, and philosophical medicine in France, 1750-18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및 사회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 했던 인간과학적 전통을 바탕으로 퇴행이론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특히 19세기 의학의 철학적 배경이 되었던 신체-도덕의 관계에 대한 카바니스(Pierre Jean Georges Cabanis: 1757-1808)의 철학<sup>9</sup>은 의학이 인간의 신체적 영역을 넘어 개인의 정신, 더 나아가서는 집단의 문화와 습속에 관여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이 되었고, 인간과학적 탐구의 중심에 위치하였던 위생학과 정신의학을 대표로 의학은 사회에 대한 탐구와 그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퇴행이론은 인간과학적 사조에 영향을 받은 의사들이 정신질환자 및 범죄자의 증가를 비롯한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여러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실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1994).

<sup>9</sup> 18세기까지 프랑스 대학의 의학부(faculté)에서는 형이상학에 기반한 의학 지식이 전수되어 왔으나, 1789년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며 직접 관찰한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이른바 '파리 임상의학'이 탄생하게 된다. 카바니스의 철학은 새로운 임상의학의 이념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18세기 철학자 로크(Locke), 콩디악(Condillac)의 경험주의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의사에게는 감각을 통해 경험으로 주어진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이해하는 이론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신체-도덕의 상호관계를 통해 정립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신체상태는 그들의 생각과 정념(passion)에 영향을 끼치고, 반대로 생각과 정념은 신체상태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카바니스에게 두 영역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는데, 이는 둘 모두 감각이라는 물리적 작용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다. (Goldstein, 1987: 51-54) 의학은 감각을 수용하는 신체를 다룸과 동시에 감각의 결과인 생각의 작용을 다루기에, 인간의 신체와 더불어 정신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학문이 되었다. 그러므로 카바니스는 개별 인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의 도덕적 문제 또한 다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그에게 의학은 인간과학 연구의 증추에 있는 학문이 되는 것이다. (Williams, 1994: 85, 89)

퇴행이론이 19세기 후반 프랑스 학계의 담론으로 널리 수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퇴행이론이 당대 사회의 여러 병폐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당대 프랑스 사회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은 띠고 있었을까? 다른 연구자들은 이러한 의문을 바탕으로 19세기 중엽 이후 변화하는 프랑스 사회에 주목하여 퇴행이론을 설명하고자 했다.<sup>10</sup> 19세기에 잇따라 발생한 크고 작은 혁명과 그 실패, 그리고 보불전쟁(Franco-Prussian War: 1870-1871)에서의 패배와 그 이후 파리 코뮌(Paris Commune: 1871)의 혼란은 프랑스 사회의 미래 전망을 비관주의적으로 물들였다. 더욱이 산업화 및 도시화가 고도로 진행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도시빈민 및 범죄 증가 등의 문제 또한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회문제에 직면했던 당대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 원인을 ‘군중(mass)’에게 발생한 퇴행에서 찾고자 하는 풍조가 등장한다. 이들은 범죄율의 증가와 빈민의 증가, 그리고 노동자들의 ‘도덕적 결함’ 및 사회주의 성향 등, 부르주아들이 우려했던 여러 사회문제를 군중들에게 발생한 퇴행의 결과로 해석했다. 더욱이 퇴행을 막지 못하면 유럽 열강 간의 경쟁에서 프랑스가 도태될 수 있다는 내셔널리즘과 우생학(eugenics)적 사유의 본격적 유행은 퇴행이론의 확산을 한층 더 부채질하였다.

---

<sup>10</sup> Nye, Robert A., *Crime, madness and politics in modern France: The medical concept of national declin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와 Pick, Daniel, *Faces of degeneration: A European disorder, c. 1848-191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이 대표적인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연구들은 여러 이론적 한계와 내부분열에 봉착한 정신과의사들의 직업전문성 확립과정에서 퇴행이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다.<sup>11</sup>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여러 학문분야에서 세분화 및 전문화가 진행되었고, 의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세부 분과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정신과의사들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정신의학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증명하여 독립적인 분과를 형성하고자 했다. 19세기 프랑스 정신의학은 해부병리학에 기반을 둔 ‘의학’이었기에 정신질환을 인간의 신체적 특성을 기반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할 철학적 배경 (즉, 유물론)은 당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물론 의학은 19세기 이전부터 정신질환을 다루어 왔지만 당대 의사들은 카바니스의 철학에 바탕을 둔 유물론을 표방하여 해부병리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학을 정립하고자 하였고, 따라서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해부병리학적 원리를 통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정신과의사들은 신경계의 해부병리학적 분석을 토대로 신경계의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그를 통해 정신작용을 설명하고자 했지만 이러한 기획은 불가피하게 유물론에 강한 거부감을 표하던 프랑스 종교계와 보수적 권력을 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Jacyna, 1987L 134-135; Williams, 1991: 161-166)

해부병리학적 원리만으로 인간의 여러 정신작용을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1850년

---

<sup>11</sup>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Dowbiggin, Ian, *Inheriting madness: professionalization and psychiatric knowledge in nineteenth century Franc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과 Goldstein, Jan, *Console and classify: the French psychiatric profess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등이 있다.

을 전후하여 어려움에 봉착하기 시작했고, 이에 유심론(spiritualism)<sup>12</sup> 진영의 공격은 거세질 수밖에 없었다. (Goldstein, 1987: 261-262) 이러한 대립이 지속되던 와중 등장했던 퇴행이론을 통해 정신과의사들은 유전(heredity)이라는 ‘과학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정신질환을 설명하면서도 해부병리학적 설명을 우회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의사집단 내부 갈등 및 타집단과의 갈등을 유발하였던 유물론-유심론의 이분법을 피할 수 있었다. (Dowbiggin, 1991: 135) 한편 퇴행이론은 정신과의사와 가톨릭 성직자 간의 정신병원(asile d’aliéné) 주도권 경쟁에서도 정신과의사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18세기까지 프랑스의 정신병원은 구호소(救護所)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따라서 가톨릭 성직자들의 주도하에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의사들이 점차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내세우고 환자 치료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두 집단 간의 영역 다툼이 발생했다. 이러한 직역간 분쟁에서 정신과의사들은 퇴행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정신과의사들은 환자에게 발생한 퇴행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퇴행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

<sup>12</sup> 19세기 전반 프랑스 유심론은 멘드비랑(François-Pierre-Gontier de Biran, 통칭 Maine de Biran: 1766-1824)을 거쳐 쿠쟁(Victor Cousin: 1792-1867)의 절충주의(eclecticism) 철학으로 부분적으로 계승되었다. 쿠쟁은 7월 왕정 시대(July Monarchy: 1830-1848) 프랑스 교육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고, 그의 철학은 자연스럽게 프랑스 학교의 커리큘럼에 포함되었다. (Goldstein, 1987: 183) 쿠쟁의 절충주의는 결코 분리되어 분석할 수 없는 온전한 ‘자기(moi)’의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따라서 신경계의 구조와 정신작용의 분석을 통해 정신을 이해하고자 했던 유물론, 특히 당시 정신의학계의 대표적인 유물론적 사조였던 골상학(phrenology)과 대립하였다. (Williams, 1994: 186)

전문가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었다. (Dowbiggin, 1991: 135) 의학사학자 도비긴(I. Dowbiggin)은 1843년 창간 이래 당대 프랑스 정신의학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회지였던 『의학-심리학 연보(*Annales Médico-Psychologiques*)』<sup>13</sup>에 게재된 정신과의사들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들이 가진 이해관계의 흐름을 분석했고, 퇴행이론이 타 직업과의 분쟁에서 정신과의사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임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유물론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관점이 통일되지 않았던 정신과의사 집단의 구심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음을 보였다. 더군다나 퇴행이론은 앞서 언급한대로 19세기 후반기 본격화된 프랑스 사회의 여러 문제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고, 따라서 사회병리적 현상에 대한 전문가로서 정신과의사의 사회적 위신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Dowbiggin, 1991: 36-37)

본 연구에서는 주로 퇴행이론과 인간과학의 관련성, 그중에서도 인간의 신체적, 도덕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개혁을 추구했던 인간과학의 실천적인 면모와 모델의 퇴행이론 간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모델은 『개론』에서 인류의 퇴행을 일으키는 다양한 물질적, 도덕적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으

---

<sup>13</sup> 『의학-심리학 연보』는 프랑스의 정신의학 모임 단체였던 의학-심리학 협회(Société Médico-Psychologique)의 학회지이다.

며, 더욱이 그는 이러한 퇴행의 문제의 해결,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재생’<sup>14</sup>을 위해 의사 뿐만 아니라 통계학자, 경제학자, 도덕주의자(moraliste)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Morel, 1857: 659) 이러한 모렐의 실천적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는 19세기 전반기 인간과학의 기획과 맞아떨어졌던 위생학자들, 그리고 기독교 사회주의자라고 불릴 수 있는 몇몇 의사들과 닮아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첫 번째 목표는 인간과학의 정신을 공유하고 있는 19세기 전반기의 여러 학자들의 사유와 모렐의 퇴행이론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강조하고자 하는 또 다른 부분은 모렐의 퇴행이론이 후대학자들에게 인간과학의 맥락과는 다르게 수용되었다는 점이다. 『개론』이 출판되었던 1857년 프랑스에서 인간과학적 사유는 이미 쇠퇴의 기로에 접어든 상황이었다. 실증적 접근법이 인간의 정신작용과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신체-도덕의 관계는 더 이상 19세기 전반기와 같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정신의학 및 신경과학에서 잠시 쇠퇴한 듯 보였던 해부병리학적 사고는 1860년대 이후 뇌의 국재화(localization) 연구를 통해 다시금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위생학, 인류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도 실증적 분석과 실험적 방법론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모렐의 퇴행이론은 『개

---

<sup>14</sup> 모렐은 퇴행된 상태에서 본래 인간의 완전한 상태로의 복귀를 ‘재생(régénération)’이라 표현하였다.

론』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인간과학적 사유와는 다른 패러다임에서 이해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적으로 인간과학의 이념이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 19세기 전반기 프랑스의 임상의학, 위생학, 정신의학이 가지고 있던 인간과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모렐의 『개론』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면 인간과학적 특성이 퇴행이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더불어 1860년대 이후의 정신의학, 위생학 등 여러 학문의 세분화 및 전문화의 흐름 속에서 퇴행이론이 모렐이 의도했던 맥락과 다르게 수용될 수밖에 없었던 연유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 제 2 장 인간과학의 전통

### 제 1 절 혁명 이전의 인간과학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 (John Locke: 1632-1704)에 따르면 인간은 경험을 통해 지식을 형성하고 세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은 시초에는 ‘백지상태(tabula rasa)’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모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임과 동시에 교육을 통해 계몽될 수 있는 존재이다. 로크의 경험주의 철학은 콩디악(Étienne Bonnot de Condillac: 1714-1780)을 비롯한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들 역시 교육을 통해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교육은 언제나 중요한 화두였다. (La Berge, 1992: 11; Quinlan, 2006: 662-663)

계몽주의자들이 로크의 ‘백지상태’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있듯이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각자 차이를 지닌 존재였고 이러한 차이로부터 모든 인간이 완벽한 인간으로 기능하게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Quinlan, 2006: 649-675, 654)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적 개인에 대한 보편적 신뢰를 가졌던 계몽주의자들에게 “자율적이고, 자기 규제적이며 자유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Jacyna, 1987: 128) 인간을 만들어 내기 위한 교

육은 중요한 관심사였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이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국민의 신체적, 도덕적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Hacking, 1990: 15)

18세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여러 정보들의 수집은 독일어권 국가의 관방학(cameralism)에서 특히 두드러진 특성이었다. 소위 ‘계몽전제군주’ 치하에서 국부를 증대시키고 행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구성, 지하자원분포, 농업생산력을 비롯한 국가의 다양한 정보들이 수집되고 분석되었다.<sup>15</sup> 또한 국가가 의료인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행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 개선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경찰(medical police)’ 개념 또한 이 시기에 등장하였다.<sup>16</sup> (Goldstein, 1987: 21) 프랑스의 구체제(Ancien régime)하에서도 1780년을 전후하여 비슷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 1776년 왕립의학협회(Société Royale de Médecine)의 설립은 이러한 국가의 기획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왕립의학협회는 국왕의 명령하에 역병 유행의 파악과 그 관리, 국민의 생활환경 파악, 인구패턴 분석, 모유수유 여부를 비롯하여 위생과 관련된 생활사를 분석했을 뿐만 아니

---

<sup>15</sup> 18세기 국가단위의 통계 수집에 대해서는 Hacking, I. (1990) *The Taming of Ch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 3. “Public amateurs, secret bureaucrats,” pp. 16-26 및 Ch. 4. “Bureaux,” pp. 27-34를 참조할 것.

<sup>16</sup> 위생경찰은 식수, 식품 등의 위생과 감염병의 예방 등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Goldstein, 1987: 21) ‘의사경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osen, George, “The fate of the concept of medical police 1780-1890,” *Centaurus* 5 (1957), pp. 97-113.을 참조할 것.

라 신체 및 도덕교육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하였다. (Williams, 1994: 69-73) 비록 프랑스 혁명시기를 거치며 1793년 해산되었지만, 왕립의학협회는 1820년 국립의학학회(Académie Nationale de Médecine)의 형태로 재설립되었고 비슷한 역할을 다시금 수행하게 되었다. (La Berge, 1992: 14)

## 제 2 절 국가 개입의 확대와 통계의 활용

프랑스 혁명, 그리고 제1제정시대 (1804-1814; 1815)를 거치며 프랑스는 본격적인 행정 체계화를 이룩하게 된다. 이는 국가단위 행정력의 발달을 통해 계몽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국가 및 국민현황의 파악과 분석,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사회통제가 체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수요의 증가와 맞물려 통계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Coleman, 1982: 138) 특히 국민 현황의 파악에 있어 통계의 역할은 단순히 현황을 기술(記述)하는데 그치지 않았고, 개인과 집단의 도덕적 특성과 관련한 ‘도덕통계(statistique morale)’ 역시 활발히 이루어졌다. (Hacking, 1991: 182)

도덕통계의 활용은 19세기 전반기 정신의학의 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1820년대 정신과 의사 집단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에스키롤(Jean-Étienne Dominique Esquirol: 1772-1840)과 팔레(Jean-Pierre Falret: 1794-1870)의 자살 통계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그 밖에도 범죄, 특히 정신질환자가 주로 범한다고 여겨졌던 상습범죄(recidivism)에 대한 수량적인 연구가 182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Hacking, 1990: 182) 통계학이 인과론적 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의심과 한계<sup>18</sup>에도 불구하고 도덕의 영역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자신들의 연구영역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의사 집단에게, 그리고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에 대한 통제를 확고히 하고자 했던 관료 집단에게 통계의 활용은 대단히 유용하게 여겨졌다. (Williams, 1994: 157-8)

### 제 3 절 기독교 사회주의자

통계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한 사회현황 분석은 지배층과 관료들의 관심 분야이기도 했지만 사회개혁을 목표로 하였던 지식인들 또한 이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

<sup>17</sup> 에스키롤과 팔레의 통계는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18세기까지 인간의 자유의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정신활동에 관한 통계가 수집되기 시작하고 그 인과관계(혹은 상관관계)가 통계학적으로 분석된다는 점은 기존에 철학의 영역에 속해 있었던 인과론이 19세기 전반기에 접어들어 통계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Hacking, 1990: 65-8). 통계학이 인과론적 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지에 대한 19세기의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Hacking, Ian, *The taming of ch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를 참조할 것.

<sup>18</sup> 19세기 프랑스 의학계 내부에서도 통계적 방법론이 인과성을 밝혀낼 수 없다는 주장이 거듭 제시된다. 가령 실험생리학자 베르나르(Claude Bernard: 1813-1878)는 실험적 방법론만이 인과성을 밝혀낼 수 있다고 보았다. (La Berge, 1992: 58)

그리고 이러한 사회개혁 정신은 이른바 공상적 사회주의자(utopian socialist)들 역시 공유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초기 사회주의자 생시몽(Claude Henri de Rouvroy, Comte de Saint-Simon: 1760-1825)은 후기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학자였던 콩도르세(Marie Jean Antoine Nicolas de Caritat, Marquis of Condorcet: 1743-1794)의 사회개혁 정신을 이어받음과 동시에, 사회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콩도르세의 시대에 사회를 분석하는 모델이 수학적이었다면, 생시몽은 유기체적 모델을 통해 사회를 분석하였다. 이는 생시몽의 관점에서 사회는 그 나름의 법칙을 가지고 변화해 가며, 개인에 대한 분석만으로 환원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Pick, 1989: 62) 따라서 사회분석의 방법론 또한 수리통계적 탐구와 더불어 인류 집단의 문화를 비롯한 도덕적 영역에 대한 정성적(定性的) 탐구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그는 당대 사회의 물질적, 도덕적 재생을 추구할 수 있었다. (Williams, 1994: 180) 기독교 사회주의자(Christian socialist)들 또한 사회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당대 사회의 도덕적 발전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생시몽, 콩트<sup>19</sup>(Auguste Comte: 1798-1857)와 유사한 관점을 보였지만, 기성종교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두 학자와 달리 이들은 가톨릭 교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Pick, 1989: 63)

대표적인 기독교 사회주의자이자 의사, 그리고 정치가였던 뷔세(Philippe-Joseph-

---

<sup>19</sup> 현대 사회학의 시조로 여겨지는 콩트가 사회를 이해한 방식은 그의 스승이었던 생시몽의 사유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Benjamin Buchez: 1796-1865)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정신의학 학회였던 의학-심리학 협회(Société Médico-Psychologique)의 주요 기여자 중 한 명으로 19세기 프랑스 정신의학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모델과의 오랜 교류를 통해 그의 퇴행이론의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므로 그의 사유를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sup>20</sup>

(Dowbiggin, 1991: 87, 118-119) 뷔세의 사유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그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기저에 두면서도 유물론적 색채를 띠었던 당대 의학의 주요 이념 역시 흡수했다는 점이다. 뷔세는 유물론-유심론 간의 첨예한 대립의 대상이었던 자유의지(free will)가 유기체 내의 물리적 작용에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보았지만 그럼에도 결코 유기체에 일방적으로 종속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의 관점에서 신체와 정신은 상호 연관적

---

<sup>20</sup> 뷔세는 1820년경 생시몽주의와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부르봉 복고왕정(Bourbon restoration: 1814, 1815-1830)의 전복을 추구했던 프랑스 카르보나리 운동(La Charbonnerie)에 참여했다. 그와 뜻을 함께했던 기독교 사회주의자들 중에는 트렐라 (Ulysse Trélat: 1798-1879)와 세리즈(Laurent Alexis Philibert Cerise: 1807-1869) 등의 여러 의사 또한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의 목표는 대중들의 삶의 수준을 개선하고 사회를 적극적으로 변혁시키는 것이었다. 비록 기존 경제체제의 전복에는 실패했으나 뷔세는 1848년 2월혁명 이후 온건 공화주의자들의 주도하에 파리의 부시장으로 임명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2공화국 시기(1848-1852) 한 달여간 초대 국회의장(Président de l'Assemblée)을 지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발발한 루이 나폴레옹(Louis Napoleon)의 쿠데타 이후 1851년 체포되었다가 곧 풀려났고, 그 이후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그만두고 의학-심리학 협회 활동에 매진하였다. (Pick, 1989: 63-66; Dowbiggin, 1991: 86-8)

<sup>21</sup> 모델은 『개론』에서 뷔세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그로부터 받은 영향을 드러내고 있다. 『개론』에 대한 첫 서평을 의학-심리학 연보에 게재한 학자 또한 뷔세였다. [Buchez, Philippe -J. B., "Rapport fait à la Société médico-psychologique sur le Traité des dégénérescences physiques, intellectuelles et morales de l'espèce humaine et des causes qui les produisent, par le docteur- B. -A. Morel," *Annales médico-psychologiques*, 3 (1857), pp. 455-467]

이면서도 서로 종속되지 않는, 일종의 이중적 본질(double nature)을 구성했다. (Dowbiggin, 1991: 88-89) 이러한 절충적 입장은 뷔세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던 가톨릭과 프랑스 의학계의 화해를 위한 견해이기도 했지만, 1840년대 이후 의사집단 내 신체와 정신의 관계에 대한 여러 관점 중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점이기도 했다. 실제로 185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물론-유심론의 이분법적 대립은 19세기 전반에 가졌던 폭 발력을 더 이상 갖지 못했다. (Dowbiggin, 1991: 87-88)

뷔세는 생시몽과 마찬가지로 사회를 유기체적 원리로 파악했으며, 당대 프랑스의 마장디(François Magendie: 1783-1855)와 베르나르(Claude Bernard: 1813-1878)로 대표되는 실험생리학의 개체 중심적 시각을 넘어 인류 집단의 단위에서 그 특성과 작동원리를 규명하고자 했다. 뷔세는 ‘중’으로서의 인류의 법칙은 인간 개별의 법칙과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고 보았고, 이는 신체의 작용을 탐구하는 생리학과는 구분되는 사회 전체 단위의 ‘생리학적’ 탐구가 필요함을 의미했다. (Jacyna, 1987: 117-119; Williams, 1994: 219-221) 또한 뷔세는 사회의 작동원리에 더해 사회가 공통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해서도 탐구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사회 내 여러 집단 간의 내부적 화해, 그리고 인류 전체의 목표에 대한 공통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고 실현시키는 것은 과학, 특히 인간과학으로서 의학의 역할이었다. (Jacyna, 1987: 118-119; Williams, 1994: 219-221)

사회를 극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의 모든 19세기 전반의 기획은 실패로 귀결되

었고, 뷔세 역시 1848년 2월혁명과 뒤이은 프랑스 사회의 혼란을 직접 목도하게 되었다. 인간과학의 이념하에서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은 과학, 특히 의학을 통한 사회의 진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2월혁명과 이후 제2제정 시대 (1852-1870)를 거치면서 부르주아와 대중은 더 이상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Williams, 1994: 213-214; Quinlan, 2007: 209) 지식인 사회에서도 사회진보에 대한 믿음은 비관적 현실을 받아들이는 냉소주의로 점차 전환되었고, 1850년대 이후 뷔세 역시 제2제정과 정신과의사 집단 간의 화해를 추구하게 되었다. (Dowbiggin, 1991: 87) 비록 위생개선과 도덕교육을 통해 대중을 구원하겠다는 목표의식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었으나,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사회구조 개혁에 앞장서는 것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었다. (Dowbiggin, 1991: 89) 결국 19세기 중엽을 지나면서 선의, 온정주의(paternalism), 휴머니즘적 본성으로 대표되는 계몽시대의 낙관주의적 유산은 빛이 바래게 되었다.

## 제 4 절 19세기 전반기의 위생학

19세기 전반기의 여러 학문분야 중 사회개혁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난 분야는 위생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의학사학자 라버즈(A. F. La Berge)가 언급한 바와 같이 뷔세를 비롯한 당대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의 사회개혁적 성향은 전반적으로 위생학자들과 매우 유사했기에 이들이 19세기 전반기 위생학 운동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던 이유에 대한 의문



이 생기기도 한다. (La Berge, 1992: 23-4) 뷔세, 트렐라 (Ulysse Trélat: 1798-1879) 등 사회주의 성향의 의사들은 실제로도 전반적 위생 개혁에 관심이 많았고, 두 사람은 1825년 『위생학 기본 개요(*Précis élémentaire d'hygiène*)』를 공저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이 정치체제의 전반적 개혁이 다른 사회개혁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했거나, 혹은 위생학자들이 관료들과 매우 밀착되었다고 생각하여 이들 커뮤니티의 일부가 되기를 주저했을 것이라 짐작만 할 뿐이다. (Coleman, 1982: 283; Laberge, 1992: 23-4) 하지만 위생학자 커뮤니티에 속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기독교 사회주의자의 목표는 위생학자들의 목표와 매우 닮아 있었다.

자연환경 및 개인의 건강행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19세기 이전에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18세기 후반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Montpellier) 의학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생기주의자(vitalist)들은 환경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큰 관심을 기울였고,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BC 460- 377)를 자신들의 선구자로 재평가하기도 하였다. (La Berge, 1992: 9-11) 하지만 18세기까지의 위생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주로 개인의 양생법(養生法)에 대해 다루는 데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관심이 사회적 규모로 확대되어 연구되거나 또는 행정적 수단과 본격적으로 결합되지는 않았다. (La Berge, 1992: 2) 생활환경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국가단위 조사의 예는 1776년 설립된 프랑스 왕립의학학회의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물질적, 도덕적 환경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던 위생학이 독립적인 학

문으로 부상하게 된 시기는 서유럽에서 도시화와 산업화의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던 19세기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위생학 연구의 주요 무대는 거의 전적으로 도시였다. (La Berge, 1992: 34)

19세기 위생학자들은 당대 대도시의 위생문제와 건강 간의 관련성을 연구함과 동시에 관료집단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추게 되었다. 파리의 센 지방 위생 위원회(Conseil de salubrité de la Seine)를 시작으로 프랑스의 여러 대도시에 위생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여기서 위생담당 관료들이 위생학자를 비롯한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는 했다.<sup>22,23</sup> (La Berge, 1992: 113) 그와 동시에 위생학자들은 1795년 설립된 도덕 및 정치과학회(Académie des Sciences Morales et Politiques)<sup>24</sup>와 1829년 창간된 학술지 『공중위생과 법의학 연보(*Annales d'Hygiène Publique et de Médecine Légale*)』 등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위생학 연구성과를 공유하였다.

『공중위생과 법의학 연보』 창간호의 창간 취지문(Prospectus)은 19세기 프랑스 위생학자들의 목표의식과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과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

---

<sup>22</sup> 프랑스의 타 대도시에도 비슷한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817년 낭트(Nantes); 1822년 리옹(Lyon); 1828년 마르세유(Marseille); 1829년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sup>23</sup> 프랑스의 위생학자들이 직접적으로 통치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미국, 영국의 위생학자들에 비해 적었다. 위원회에서 위생학자들의 역할은 권고에 그쳤다. 그럼에도 위생학자들은 관료들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 (La Berge, 1992: 115)

<sup>24</sup> 1803년 해체되었다가 1832년 재설립되었다.

의학의 목적은 단지 병을 치료하고 연구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의학은 사회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때로는 의학은 입법부의 법률제정을 도우며, 사법부의 법률적용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언제나 의학은 행정부와 함께 공중위생의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학자들의 여러 노력들을 통해 몇몇 직업의 비위생적인 환경을 줄이고 역병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몇몇 장소의 청결도를 개선시켰으며,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의 치료환경을 개선시켰다. (……) 정신질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도덕적 자유(liberté morale)와 (……) 몇몇 행위의 범죄성(criminalité)에 대한 여러 의문점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하였다.<sup>25</sup>(1829: v-viii)

장간 취지문에서 주목할 만한 점 하나는, 법의학(legal medicine)이 공중위생과 동등한 지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세기 프랑스 의학의 철학적 기반이 되었던 신체-도덕의 관계를 토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공중위생이라는 물질적 위생개선을 위한 활동에 대응되는 것이 도덕적 위생개선을 위한 법의학적 연구인 것이다. 이처럼 19세기 프랑스 위생학은 인구집단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도덕적 건강의 개선을 위해 다방면에서 활동하였고, 도덕적 건강의 개선이라는 목표는 법의학의 영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사회, 문화적 행동양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또한 포함하였다.

---

<sup>25</sup> “Prospectus,” *Annales d’ Hygiène Publique et de Médecine Légale* 1 (1829), pp. v-viii

(Hunt and Rimke, 2002: 65)

상기한 위생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세기 전반기 프랑스 위생학자들은 다방면에서 활동하였다. 당대 위생학은 대략적으로 ‘자유주의 위생학’과 ‘국가개입주의(statism) 위생학’의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개입주의 위생학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파랑뒤샤틀레(Alexandre Jean-Baptiste Parent-Duchâtelet: 1790-1836)가 적극적인 행정적 개입을 통한 하수처리의 개선, 매춘실태 조사, 말 사체 처분과정의 개선<sup>26</sup>등의 공중위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였다면, 자유주의 경제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비에르메(Louis René Villermé: 1782-1863)는 행정적 개입보다는 경제발전을 통한 빈민층의 생활수준 제고, 그리고 교육을 통한 도덕위생 개선을 중시하였다. (La Berge, 1992: 1-6) 비에르메는 교육의 기회를 빼앗아 도덕위생 차원에서 큰 문제를 유발한다고 여겼던 아동노동 문제를 제외하고는 행정적 규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sup>27</sup> (Coleman, 1982: 250)

비에르메의 위생학은 도시위생문제의 해결책을 도덕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찾았다는 점에서 19세기 전반기 인간과학의 이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도덕교육과 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감옥환경 개선에 대한 1820년 초기 작

---

<sup>26</sup> 19세기까지 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은 마차였기에 말에 대한 수요는 상당했고, 따라서 위생적인 말 사체의 처리는 도시위생에 대단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했다.

<sup>27</sup> 비에르메를 비롯한 여러 위생학자의 노력의 결과 1841년 3월 22일 아동노동제한 법안이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다만 법안의 실질적 구속력은 제한적이었다고 한다. (Coleman, 1982: 253-255)

품 『감옥의 현황과 그 미래에 대하여(*Des prisons telles qu'elles sont et telles qu'elles devraient être*)』 (1820)에도 잘 드러난다. 이 저작에서 비에르메는 재범과 초범의 분리, 적절한 노역강도 유지를 통한 성욕의 억제, 출소 이후를 대비한 도덕교육 등을 통해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leman, 1982: 106-107) 또한 그는 적극적인 통계 활용을 통해 도시의 물질적, 도덕적 위생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꾀하고자 하였다. 앞서 에스키롤과 팔레의 자살 통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통계학적 방법론의 활용과 도덕적 해결책의 강조는 결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저작 『면, 모, 견직공업 노동자들의 신체적, 도덕적 상태에 대한 보고서(*Tableau de l'état physique et moral des ouvriers employés dans les manufactures de coton, de laine et de soie*)』 (1840)에서 비에르메는 1835년부터 1837년까지 릴(Lille)<sup>28</sup>의 노동현장을 직접 시찰한 경험과 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상세한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노동자의 건강상태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서 비에르메는 공장의 유해물질을 비롯한 여러 환경적 요인과 노동자의 건강문제 간의 상관성이 크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Coleman, 1982: 230) 그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 도시 노동자의 건강악화와 가장 상관성이 높은 지표는 경제적 빈곤함이라고 분석했고, 따라서 그들의 건강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은 그들의 임금상승을 유도하는 것이었다.<sup>29</sup> (Coleman, 1982:

---

<sup>28</sup> 프랑스 북부 공업도시이다.

<sup>29</sup>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비에르메를 비롯한 위생학자들은 1832년 프랑스의 콜레라 유행 때 저소

179, 230) 비에르메는 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자연스레 개선될 것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도시빈민과 그들의 건강문제 역시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sup>30</sup> (Coleman, 1982: 291)

노동자의 건강증진이 경제규모의 발전을 통해 견인될 수 있다고 믿었다면 이 과정에서 위생학자의 역할은 무엇이였을까? 비에르메는 노동자의 교육을 통한 도덕위생 개선이 임금상승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고 보았다. 가령 알코올 중독, 매춘을 비롯한 여러 비행은 노동자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큰 해악을 끼친다고 보았고, 따라서 그는 이러한 비행을 감시하기 위한 계도자로서 고용주의 역할을 일관적으로 강조했다. 고용주에게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은 그가 제시한 도시위생문제 해결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Coleman, 1982: 219-236) 이러한 해결책은 18세기부터 계속된 계몽주의적 교육관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19세기에 새롭게 부상하는 부르주아의 도덕관념이 도덕적 위생이라는 이름하에 노동계층으로 이식되는 과정이라 해석할 수 있다.

경제체제와 도덕위생에 대한 자유주의 위생학자의 견해를 기독교 사회주의자와 비교해 본다면 이들의 특성이 명확히 드러난다.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은 비록 혁명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모호했을지라도 자본주의 사회구조를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타

---

독층 거주지에 유의미하게 사망자가 많았음에 주목하였다 (Coleman, 1982: 174)

<sup>30</sup> 비에르메의 위생학과 자유주의 경제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Coleman, William, *Death is a social disease: public health and political economy in early industrial France*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2). 의 “Ch.9. Villermé Economist,” pp. 241-276을 참조할 것

파의 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위생학자들, 특히 비에르메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위생학자들은 도덕적 교육 이상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주장하지 않았다. (Coleman, 1982: 237-238) 하지만 이러한 대비되는 견해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사회주의자들과 자유주의 위생학자 모두 사회의 도덕적 개혁을 자신들의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두 집단의 유사점이 드러난다. 이러한 유사성은 두 집단의 공통된 목표의식이 계몽시대로부터 이어진 인간과학의 기획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1848년 2월혁명과 이후 제2제정의 성립은 도덕 중심의 위생학이 크게 변모하는 기점이 되었다. 제2제정 시대 센(Seine)지방<sup>31</sup> 주지사를 지냈던 오스만 남작(Georges-Eugène Haussmann: 1809-1891)은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파리를 전면적으로 재건축하였고, 이를 통해 19세기 전반기 내내 도시위생의 골칫거리였던 하수구 문제와 주거 환경 문제를 대폭 개선하였다. 이는 위생학의 목표였던 도시빈민들의 건강개선이 19세기 전반기 자유주의 위생학자들이 추구했던 도덕위생 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체적 국가 권력을 통해 실현되었음을 의미한다. (La Berge, 1982: 190, 314) 더욱이 파스퇴르(Louis Pasteur: 1822-1895)의 연구로 인해 1860년대 세균설(germ theory)이 확립되면서 프랑스 위생학은 점차 실험과학적 방법론과 결합한 실증적인 학문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신체-도덕의 관계를 바탕으로 제시되었던 도덕 중심 해결책은 점차 위생학에서 영향력을 잃

---

<sup>31</sup> 과거에 존재하던 프랑스의 행정구역으로, 수도 파리 및 인근 지역을 관할했다.

어갔다. (La Berge, 1982: 316-317)

## 제 5 절 정신의학과 그 한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기 전반기 프랑스에서 정신질환의 문제는 도덕위생의 범주에서 논의되었고, 당대 정신의학 역시 위생학과 마찬가지로 인간과학의 정신을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19세기 정신의학은 유물론에 기반한 신경계의 해부병리학적 탐구에 강하게 밀착되어 있었다. (Williams, 1994: 85-88) 이러한 유물론적 사유는 정신과의사들이 구체제의 정신적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기존 가톨릭 세력과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1823년 자유주의 성향의 파리 의학부교수들에 대한 정권의 대대적인 숙청의 예에서 드러나듯이 의학회 전반에 표출되었는데, 유심론-유물론의 대립은 인간의 정신작용을 직접적으로 다루었던 정신과의 영역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Williams, 1994: 118) 가톨릭 세력에 대응하는 정신과의사들의 공동전선은 정신과의사의 직업전문성 확립의 역사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Goldstein, 1987: 274-5)

19세기 전반기의 정신의학은 피넬(Philippe Pinel: 1745-1826)의 도덕치료(moral treatment)로 대표된다. 피넬은 프랑스 혁명 시기부터 신체-도덕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도덕치료를 본격적으로 전개했는데, 도덕치료에서 정신과의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환자의 정신질환을 유발했던 기존의 환경으로부터 환자를 해방시키는 데 있었다. (Goldstein, 1987: 79) 경험을 통한 교화를 강조하는 계몽주의적 이념에 발맞춰 환경은 도덕적 재생을 위한 수단이 되었고, 재생을 위한 새로운 환경을 제공해주는 정신병원은 감금의 장소가 아닌 계몽의 정신을 실현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렇게 정신질환자들은 과거 정신병원의 억압적인 ‘족쇄’로부터 해방되었고 정신병원은 인간의 정신작용과 그 이상을 분석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교화의 장소로 거듭나게 되었다.<sup>32</sup>

(Goldstein, 1987: 109-110)

피넬 이후 프랑스 정신의학은 인간과학의 기획에 발맞춰 사회의 도덕적 영역에 대한 분석과 개입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정신의학의 확장적 행보는 정신질환자들이 일으키는 범죄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법조계와 영역다툼을 하는 원인이 되었다. (Dowbiggin, 1992: 128) 전통적으로 법적 처분은 범죄자의 자유의지를 전제했지만, 정신과의사는 정신질환자의 자유의지 부재를 주장했고 따라서 이들을 기존의 법률로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정신과의사의 논리에 따르면 모든 정신질환은 정신과의사의 관점에서 신체적 질환이고, 따라서 의사가 다루어야 할 고유 영역이므로, 범죄자의 정신질환 유무 확인과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의료의 영역에 속하

---

<sup>32</sup> 피넬과 도덕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Goldstein, Jan, *Console and classify: the French psychiatric profess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의 Ch 3. The transformation of charlatanism, or the moral treatment. pp.64-119를 참조할 것.

게 되었다. (Dowbiggin, 1992: 128) 이러한 분쟁은 정신과 의사가 도덕위생의 영역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결과의 일면이었다.

한편 정신과 의사 집단은 정신병원 관리 주체를 두고 성직자와의 영역 분쟁 또한 겪게 되었다. 19세기 이전까지 정신병원에서의 환자 돌봄은 주로 교회와 성직자의 몫이었으나 정신의학이 분과 학문으로서 정체성을 갖춰 나가면서 정신과 의사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내세워 주도권을 가지고자 하였다. 두 집단의 치열한 다툼 및 그들이 전제하고 있는 정신작용의 근원에 대한 철학적 기반의 대조와는 별개로 정신과 의사들의 도덕치료와 성직자들이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치료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존재했고, 실제로 정신병원에서의 실무에서는 두 집단이 서로 협력하는 경우도 많았다. (Goldstein, 1987: 227-228) 이처럼 직업전문성에 대한 추구하고 새로운 철학적 기반에 대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적 영역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정신과 의사들은 더욱 대내외적으로 자신들의 정당성과 전문성을 부각시키려 할 수밖에 없었다.<sup>33</sup>

도덕적, 사회적 영역에서 자신의 권위를 획득하고자 했던 정신과 의사들의 노력의 결과 1838년 프랑스 의회에서 정신병원 관리에 대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들은 정신병원 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Williams,

---

<sup>33</sup> 성직자와의 정신병원 주도권 영역분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oldstein, Jan, *Console and classify: the French psychiatric profess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특히 Ch. 6. Religious roots and rivals, pp. 197-239. 를 참조할 것

1994: 160-161) 하지만 법적으로 정신질환자의 관리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에 성공했음에도 정신과 의사의 직업전문성 확립의 길은 결코 순탄치 못했다. 도덕치료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효능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들 내부에서조차 통일된 견해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더러 다른 임상의학 분과에 비해 정신의학의 해부병리학적 기반이 취약함을 내부적으로도 인식하고 있었기에, 이를 타개할 여러 이론들이 각축을 벌이기 시작했다. (Dowbiggin, 1991: 22-3, 53; Coffin, 2003: 66-67) 1820년대를 전후하여 프랑스 정신의학계에서 유행했던 에스키롤의 편집광(monomania) 이론<sup>34</sup>의 등장과 쇠퇴는 이러한 정신의학계 내부 혼란의 일면을 보여준다. 합의된 분류체계가 없었던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 임상 증상을 바탕으로 분류체계를 만들어낸 편집광 이론은 에스키롤의 권위를 바탕으로 널리 퍼지게 되었지만, 편집광 이론은 결코 질병의 체계적 분류를 가능케 할 수 없었으며 타 임상의학분과의 분류체계와의 연관성은 더욱이 부족했기에, 곧 편집광 이론의 유행은 수그러들었다.<sup>35</sup>(Goldstein, 1987: 153-155, 195)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19세기 전반기 정신의학은 그 학문적 완결성에 대한 대내외적 의구심과는 별개로 사회의 도덕위생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고, 정신과 의사들은 자신

---

<sup>34</sup> 모든 정신질환은 특정요소에 대한 편집적 집착으로 간주되었다. 현대 정신질환 분류법에 남아 있는 각종 -mania (pyromania, kleptomania, megalomania)은 그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sup>35</sup> 편집광 이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Goldstein, Jan, *Console and classify: the French psychiatric profess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의 “Ch. 5. Monomania,” pp.152-196를 참조할 것

들이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 및 전국적인 정신병원의 지속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병상 숫자는 정신질환자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이는 프랑스 사회의 정신질환 문제가 악화일로를 걷는다는 우려를 낳았다. (Morel, 1857: vii-viii) 위와 같은 정신의학의 여러 한계가 명확해진 시점에 모렐은 퇴행이론을 제시하게 된다. 그의 퇴행이론은 사회에 만연해 가는 정신질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 했으며, 또한 퇴행의 발생원인과 진행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정신질환을 분류하고 퇴행으로부터 사회를 ‘재생(regenerate)’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Morel, 1857: 362)

## 제 3 장 모렐의 『개론』 과 퇴행이론

### 제 1 절 모렐의 생애<sup>36</sup>

모렐의 퇴행이론은 인간과학적 학문경향이 쇠퇴하기 시작한 1857년에 등장했지만 그럼에도 그가 퇴행이론을 통해 추구했던 인류의 ‘신체적, 지적, 도덕적 재생’은 인간과학의 이념과 매우 닮아 있다. 1857년 『개론』을 발간할 시점까지 모렐의 생애와 그가 연구했던 지적환경을 살펴본다면 『개론』이 어떠한 배경에서 쓰였는지, 퇴행이론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렐은 나폴레옹 전쟁(Napoleonic wars: 1803-1815)이 한창이던 180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프랑스군 군수 납품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전쟁의 여파로 그는 부모와 헤어져 로렌(Lorraine) 지방의 생디에(Saint-Dié)의 한 수도원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수도원장 뒤퐁(Abbé Dupont)은 어린 시절부터 명석했던 그를 매우 아꼈지만, 모렐은 라므네(Félicité Robert de La Mennais: 1782-1854)의 자유주의 가톨릭에 관심을 보였고, 이를

---

<sup>36</sup> 모렐의 생애에 대한 가장 상세한 정보는 의학-심리학 연보에 게재된 정신과의사 모테의 추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otet, M., “Eloge de Morel – Séance générale annuelle du 27 avril 1874. – Présidence de M. Ch. Loiseau,” *Annales médico-psychologiques*, 12 (1874), pp. 85-108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수도원장에 의해 수도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Motet, 1874: 85-87) 이후 파리에 정착한 그는 파리 대학 의학부에서 수학하는데, 그는 플루랑(Marie Jean Pierre Flourens: 1794-1867)등의 지도로 뷔퐁과 퀴비에(Georges Cuvier: 1769-1832)의 자연사학 및 인류학을 공부했으며 뷔셰,<sup>37</sup> 베르나르를 비롯한 여러 의사들과 교류하였다. 1839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개인의원을 개업했으나 그 결과는 신통치 못했고, 그는 파리 의학부로 돌아가 정신과의사 팔레(J.-P Falret)의 지도하에 정신의학 공부를 시작했다. 1848년 뷔셰의 소개를 통해 낭시(Nancy) 인근 마레빌(Maréville)의 정신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모렐은 최종적으로 1856년 노르망디 루앙(Rouen) 인근의 생용(Saint-Yon)의 정신병원에 정착하여 이 곳에서 은퇴할 때까지 근무하게 되었다. (Motet, 1874: 98) 어린 시절 수도원장과의 갈등, 그리고 전통적 가톨릭 이념에 벗어났던 자유주의 가톨릭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뷔셰와 마찬가지로, 당대 프랑스의 의사로는 흔치 않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남았다.

모렐이 퇴행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1844년부터 1년간량 부유한 한 정신질환자를 동반한 유럽 여정이었다.<sup>38</sup> 유럽대륙 내 다양한 지역의 환경적, 문화적 차

---

<sup>37</sup> 비록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모렐은 뷔셰를 비롯한 기독교 사회주의자들과 긴밀하게 지내며 정치, 종교, 철학에 대해 자주 논의하였다고 한다. (Motet, 1874, pp.93-4)

<sup>38</sup> 당대에는 부유한 환자가 요양차 여행을 하는 것이 드물지 않았다.

이, 그리고 특정 환경에서 주로 발병하는 크레틴병(cretinism)<sup>39</sup>, 펠라그라(pellagra) 등의 질병의 존재는 그가 학창시절부터 가져온 자연사학과 인류학에 대한 관심에 더해져 본격적으로 그가 자연 환경적, 문화적 원인과 질병의 관계에 대해 천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Motet, 1874: 92-93) 이러한 정신질환의 원인에 대한 물질적, 도덕적 영역에서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모델은 퇴행이론을 본격적으로 구상할 수 있었다.

한편 당시 파리 의학부를 지배했던 해부병리학에 기반한 임상의학 역시 모델의 퇴행이론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비록 그는 유물론자는 아니었지만 신체의 생리학적 작용에 의해 정신작용이 일어남을 명확히 했고, 『개론』에서 퇴행으로 인한 정신 증상을 분석할 때에도 그에 상응하는 해부병리학적 병변의 관찰을 중요시하였다. (Morel, 1857: 322, 333) 또한 그는 여러 퇴행을 일으키는 물질을 탐구하는데 있어 실험의학의 성과 또한 자주 인용했는데, 그에게 실험의학적 방법론은 알코올, 니코틴을 비롯한 퇴행을

---

<sup>39</sup> 크레틴병(현대적 명칭은 갑상선기능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물질인 요오드(iodine)의 결핍으로 인해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이 부족하여 생기는 질병이다. 요오드 결핍이 크레틴병의 원인임이 확인된 이후, 식염에 요오드를 포함시키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었고, 따라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크레틴병은 자취를 감추었다. 현재 대부분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선천적, 후천적인 이유로 갑상선 혹은 뇌하수체의 문제로 인한 호르몬 생성 기능의 문제로 인한 결과이며, 갑상선 호르몬의 경구 복용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 19세기까지 대부분의 크레틴병은 요오드를 포함한 식품의 섭취가 부족했던 내륙 산간지방에서 빈발하였으며, 외부로 드러나는 목 부위 갑상선종(goitre)를 포함한 다양한 신체 증상과 함께 신경계 발달의 지연을 초래하였기에 내륙 산간지방의 풍토병으로 취급받았다. 크레틴병과 요오드 결핍의 관련성은 1851년 프랑스의 화학자 샤텡(Adolphe Chatin: 1813-1901)이 제기했고 모델의 『개론』에도 잠시 소개가 되지만, 당시만 해도 여러 가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Morel, 1857: 665)

일으키는 독성물질의 작용기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다.

지금까지 모렐의 생애를 간략히 들여다보았다. 여기서부터는 『개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퇴행이론을 통해 모렐이 제시하고자 했던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가 『개론』을 저술하게 된 배경이 원인중심의 분석을 통해 서구사회가 당면한 퇴행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음을 간략히 밝힌 후 모렐은 퇴행이론에 대한 소개로 글을 시작한다. (Morel, 1857: viii)

## 제 2 절 모렐의 퇴행이론

모렐의 퇴행이론에서 퇴행은 신이 창조한 인간의 완전한 상태에서부터 벗어남을 의미한다. 즉, 퇴행을 일으키는 여러 물질적, 도덕적 원인은 인간이 가지고 완전성으로부터 이탈을 유도한다. (Morel, 1857: 2-3) 인간은 본래 외부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에 저항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특정한 원인들은 이러한 저항력을 뚫고 인간의 퇴행을 유발한다. 특정 개인에 일반적인 변이(déviaton)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환경으로 복귀한다면 그 원형을 회복할 수 있지만, 퇴행<sup>40</sup>이 일어난 경우 그 회복은 불가하다. (Morel, 1857: 6) 모렐의 퇴행에서 특기할 만한 부분은 퇴행의 영향이 한 개인의 일생에 국한된 것이

---

<sup>40</sup> 모렐은 퇴행을 일반적인 변이와 구분하여 악성변이(déviaton maladive)라고 불렀다.



아니라 자손 세대에 거듭 유전되어 인구집단 전체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퇴행이 발생하면 퇴행을 유발하는 외부 요인에 저항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퇴행의 악순환이 점차 진행되고, 결국 자손세대를 거쳐 퇴행이 유전되다가 더 이상 자손을 남길 수 없는 신체적, 도덕적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Morel, 1857: 4-5) 따라서 퇴행은 단지 한 개체에 국한된 신체적, 도덕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유전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장기적으로 집단 전체의 퇴행, 더 나아가서는 집단의 존속에 대한 문제로 확대된다.

모렐은 퇴행의 원인을 파악하고, 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개론』 전체의 목표로 삼았다. 특히 그는 퇴행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퇴행의 물질적 원인에 더해 도덕적 원인 또한 중요하게 다루었고, 또한 퇴행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류 집단의 문제이기에 그에 걸맞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퇴행 문제는 의사와 더불어 철학자, 경제학자, 법률가 등 타 직역군이 모두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로 제시되었다. (Morel, 1857: xiv-xv)

인류 퇴행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모렐은 18세기 자연과학자들의 동식물에 관한 연구와, 그리고 세계 각지의 민족들에 대한 당대 인류학자들의 연구를 소개했다.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여러 생물들과 다양한 민족의 예시는 물질적, 도덕적 요소가 생물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사실의 가장 명백한 증거였다. 뷔퐁에 따르면 생물의 종은 불변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환경적 요인에 순응(acclimatation)하

여 환경에 맞게 형태를 변화시켜 종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sup>41</sup> (Morel, 1857: 11) 인간 역시 동물과 마찬가지로 내적, 외적 환경의 변화에 끊임없이 저항하여 본래의 특성을 유지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다양한 환경에 순응하는 존재였다. (Morel, 1857: 19-20) 따라서 세계 각지의 민족들은 각자의 생활환경에 적응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가령 케추아족(Quichua)은 남아메리카 고산지대에 적응한 결과 사지(四肢)에 비해 발달된 몸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망한 이들을 부검한 결과 폐조직의 발달 소견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를 모렐은 일반적인 변이로 여기며, 이는 다양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적응일 뿐 결코 퇴행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아랍인, 에스키모(Esquimaux) 등 세계 각지의 다양한 민족들은 각자 고유한 외형과 풍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모렐은 각자 다른 생활환경에 대한 점차적 적응의 결과로 보며 이를 퇴행과 관련짓지 않았다. (Morel, 1857: 27-31) 실제로 그는 남아프리카의 호텐토트(Hottentot) 혹은 부시맨(Boschiman)과 유럽인의 차이는, 퇴행이 일어난 유럽인과 그렇지 않은 유럽인의 차이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일반적인 변이와 퇴행은 서로 질적으로 다름을 설명한다. (Morel, 1857: 34,46)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그 재생의 가능성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였기에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전자의 경우 물질적, 도덕적 환경의 변화를 통해 극적인 상태 개선을 이끌어

---

<sup>41</sup> 그와 동시에 뷔퐁은 인간이 육종을 통해 가축화한 동물이라도 야생 환경으로 돌아가면 몇 세대 만에 '정상적 형태(type normal)' 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Morel, 1857: 20)

낼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다만 약간의 증상완화만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Morel, 1857: 46)

### 제 3 절 퇴행의 여러 원인들

모렐은 “원인들의 작용 기전을 연구함으로써, 종의 병리적 변화[퇴행]에 대한 정확한 아이디어를 얻고 자연적 분류의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 (Morel, 1857: 47)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가 제시한 퇴행의 원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으며,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이들을 분류했을까? 모렐은 『개론』의 서론(prolégomène)에서 퇴행의 원인들을 탐구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여섯 가지 요인들을 제시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독성 물질 중독(intoxication)<sup>42</sup> (2) 사회적 환경(milieu) (3)나쁜 정동(affection)과 기질(tempérament) (4) 도덕적 악(mal moral) (5)선천적, 혹은 유년기에 획득한 병약함 (6) 유전적 원인에 의한 퇴행. 모렐은 위와 같은 요인에 중점을 두고 퇴행의 원인을 분류하고 이론을 전개해 나갔다. (Morel, 1857: 47-63)

우선 모렐은 퇴행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물질적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개론』에

---

<sup>42</sup> 여기서 중독(intoxication)은 물질의존성(addiction)이 아닌 독성물질로부터 건강에 위해가 가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서 물질적 원인은 크게 알코올, 식물 및 광물성 독성물질, 식이와 관련된 문제로 나누어 설명되었다.<sup>43</sup> 각각의 원인들에 대해 다뤄진 내용을 살펴본다면 그가 각각의 원인을 탐구함에 있어 어떤 요소들에 주목하였는지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퇴행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고자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1) 알코올

가장 먼저 모델은 알코올이 의학적 관점에서 연구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알코올과 퇴행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주취(ivrognerie)의 해악에 대한 의학적 기록의 추적은 고대 그리스시대와 로마시대 세네카(Seneca: BC 4- AD 65)의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Morel, 1857: 83-85) 세계 각지의 여러 역사적 자료와 알코올 음료 섭취문화를 검토한 후 본격적으로 알코올 중독에 의한 여러 신체 증상이 설명된다. 10년 이상 하루 5병 이상의 음주를 지속했던 40대 남성의 증례가 등장하는데, 그는 손떨림, 시야장애, 진전섬망(delirium tremens)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지마비, 감각소실, 환각 및 환청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급성기 치료로 잠시 증상이 완화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그는 알코올 의존 성향을 극복하지 못하였고, 증상이 다시금 악화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환자 부검 결과 뇌 주변 혈관 확장이 관찰되었으며 확장된 혈관에 혈액이 저

---

<sup>43</sup> 물질적 원인 중 자연환경과 관련된 원인은 『개론』의 후반부에 자세히 설명된다.

류되어 있었다. 뇌 일부분에 위축(atrophie)소견을 보였고, 뇌실(ventricule)에는 장액성 삼출물(exsudation séreuse) 이 발견되었다고 한다.<sup>44</sup> (Morel, 1857: 86-104)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모렐은 퇴행의 세대를 거쳐 악화되는 유전적 특성에 대해 강조했고, 알코올로 인한 퇴행에 대해서도 그와 관련된 증거가 제시된다. 한 알코올 중독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일곱 남매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 가문의 알코올 중독 증상의 내력을 추적한 결과를 모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Morel, 1857:113-125)

1세대: 부도덕함, 퇴폐, 알코올 과음, 도덕적 해이

2세대: 유전성 음주벽(ivrognerie héréditaire), 조증, 진행 마비(paralysie générale)

3세대: 취하지 않음(sobriété), 건강염려증(hypochondrie), 만성우울(lypémanie), 피해망상, 살인적 성향

4세대: 지적 발달 미약, 16세에 조증 발병, 우둔함, 백치상태(idiotisme)로 진행, 명백한 인종(race)의 멸종 가능성 (Morel, 1857: 125)

이 가족을 통해 모렐은 알코올에 의한 퇴행의 유전성과 그 증상이 세대를 거치며 악

---

<sup>44</sup> 모렐은 알코올과 관련한 대부분의 논의를 스웨덴의 의사 후스(Magnus Huss: 1807-1890)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개론』에 등장하는 알코올 관련 논의가 스웨덴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화된다는 점, 그리고 퇴행의 결과로 한 가족의 대가 끊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는 알코올로 인한 퇴행의 유전은 퇴행된 신체상태의 유전일 뿐만 아니라 음주 의존 성향의 유전이기도 함을 강조하는데, 여기에는 신체적 특성의 유전과 도덕적 특성의 유전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모렐의 생각이 담겨 있었다. (Morel, 1857: 139-140)

## 2) 식물 및 광물성 독성물질

-대마초, 아편, 담배

그 다음 모렐은 퇴행을 일으키는 여러 식물 및 광물에 대해 서술하였다. 알코올과 마찬가지로 여러 중독성 식물들은 예로부터 세계 각지에서 활용되어 왔는데, 가령 페르시아와 중동지역에서 활용된 대마초와 그 추출물인 해시시는 인체의 흥분시키고 상상력의 타락(dérégler)을 유도하며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광적상태를 유발한다고 한다. (Morel, 1857: 148-154) 모렐은 이와 같은 중독성 물질들이 보편화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환기시키기 위해 중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 위크(Évariste Régis Huc: 1813-1860)의 기록에서 발췌한 아편과 관련된 여러 정보 및 당대 중국 내 아편 유행 실태를 보여주었다.

아편은 페르시아에서 유래하였으며, 인도를 거쳐 중국에 전해졌다고 한다. 인도-중

국간 아편거래 기록은 16세기에도 존재했으나, 당시 아편 사용은 이질(dysenterie)<sup>45</sup> 과 우울감(mélancholie)등 몇몇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에 국한되었다고 한다. (Morel, 1857: 159) 위크의 기록에 따르면 1794년 영국 동인도회사가 아편 200상자를 광동항에 수출했다고 하는데, 이 숫자는 1838년 48,000상자로 폭증하였다.<sup>46</sup>(Morel, 1857: 160) 아편의 정제법과 흡입 방법에 대한 소개에 이어 아편이 일으키는 신체 변화가 제시된다. 아편은 오랜 기억을 되살아나게 하고 행복감을 주지만 흡연을 중단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밀려오는 심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었다. 아편 중독자들은 창백한 얼굴을 띠고 식은땀을 흘렸으며,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고, 환각이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Morel, 1857: 161-166) 결과적으로 1840년경 중국에서는 계층을 막론하고 아편 중독이 만연했으며, 정부 차원의 아편 흡연자 처벌 방침에도 역제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Morel, 1857: 160) 아편 중독자는 대부분 조기 사망했으며 이들이 자손을 남기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자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미약했다. (Morel, 1857: 168) 모렐은 광범위한 아편 중독으로 인해 중국의 미래 전망이 매우 비관적임을 지적하며, 영국에서 아편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데 큰 우려를 표했다. (Morel, 1857: 169-170)

---

<sup>45</sup> 현대의학의 이질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질균(shigella)은 1897년 발견되었다.

<sup>46</sup> 구체적인 기록은 다음과 같다. 1810년 2,500상자, 1820년 4,770상자, 1830년 18,760상자, 1836년 27,111상자. Huc, Evariste Régis. *L'Empire chinois: faisant suite à l'ouvrage intitulé Souvenirs d'un voyage dans la Tartarie et le Thibet*. Vol. 1. (Gaume, 1854) p.33 로부터 모렐이 인용.

대마초, 아편과는 달리 담배는 유럽에서 문화적으로 용인되었고, 모렐도 담배 흡연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담배 과용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갔다. (Morel, 1857: 171) 그는 담배 성분 중 하나인 니코틴을 활용한 동물실험을 여럿 제시했는데, 실험과학자들은 니코틴을 동물의 혈관에 주입하면 강한 독성반응을 보임을 증명했다. 실험동물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사망 이전에 호흡곤란 및 전신 떨림이 발생했으며 파상풍과 비슷한 근수축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동물의 신경계가 특히 니코틴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Morel, 1857: 175-178) 모렐은 담배 흡연만으로 인간이 치사량의 니코틴을 흡수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으나 그럼에도 흡연 시 구강 만성염증을 비롯해 구역감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금단 증상이 존재함을 지적했다. (Morel, 1857: 178-180)

모렐이 흡연자의 건강만큼이나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담배 공장 노동자의 건강문제였다. 담배 가공을 위한 담뱃잎의 발효과정에서 그 온도가 80도까지 상승하는데 그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생성되고, 여기에는 암모니아를 비롯해 아세트산, 니코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모렐은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건강에 큰 위해가 가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Morel, 1857: 181-182) 더군다나 담배를 기르는데 사용되는 농지가 넓음에도 담배가 기호품일 뿐 필수자원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많은 빈민들이 담배 구입에 적지 않은 돈을 탕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렐은 담배 흡연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Morel, 1857: 184-185)



## -산업 환경과 중금속

산업현장에서의 중금속 중독은 노동자의 건강과 한층 더 직결되었다. 모렐은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시하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중금속이 인간의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Morel, 1857: 186) 6년간 공장에서 근무해온 한 25세 노동자의 납중독 증례가 제시되는데, 이 사례를 통해 환자에게 발생한 여러 해부병리학적 이상과 기력저하, 경련, 환각 등 여러 신경계 증상, 그리고 환자가 사망한 후의 부검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 (Morel, 1857: 187-191) 모렐은 중금속에 의한 중독 증상들은 특히 만성화 될 경우 비슷한 신경계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원인감별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sup>47</sup> (Morel, 1857: 200-202) 모렐은 산업 노동자의 건강문제를 아주 우려했고, 노동자의 작업 환경과 더불어 그들의 거주 환경 및 생활위생, 도덕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개론』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설명하였다. (Morel, 1857: 605-611, 637-644)

### 3) 식이와 관련된 문제

---

<sup>47</sup> 따라서 납과 더불어 인, 비소, 수은으로 인한 중금속 중독 문제 또한 자세히 다루어 졌다. (Morel, 1857: 274-289)

-기후, 흉작, 역병

여기서 모렐은 1769년부터 1772년까지 지속되었던 유럽의 기근과 그로 인한 역병에 주목했다.<sup>48</sup> 이 기간 동안 유럽에는 연중 흐린 날씨가 지속되었고, 베수비오(Vésuve) 화산의 분출과 포르토프랭스(Port-au-Prince)의 지진, 북극의 빈번한 오로라 등 세계 각지에서 기상 이상현상이 관찰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기근을 비롯하여 여러 역병<sup>49</sup>이 창궐했다고 한다. 모렐은 흉작으로 인한 영양결핍이 퇴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더 나아가서 여러 이상현상을 일으킨 토양과 공기의 화학적 구성이 역병, 더 나아가서는 퇴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sup>50</sup>(Morel, 1857: 209-211) 그는 이러한 환경적 원인이 퇴행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는데, 그는 여러 시대에 걸친 의사 및 통계학자들의 연구들을 모두 종합하여 여러 환경적 요인들이 퇴행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Morel, 1857:

---

<sup>48</sup> 『개론』에서 기후, 흉작, 역병, 맥각병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헤커(Justus Friedrich Karl Hecker: 1795-1850)의 저작 Hecker. J. F. K., *Geschichte der neueren Heilkunde. Die Volks-Krankheiten. Von 1770 Histoire de la médecine moderne. Epidémies de 1770*. Berlin, 1839. 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한다.

<sup>49</sup> 발적을 동반하는 티푸스성 열병 및 천연두 등이 발생했다고 한다.

<sup>50</sup> 당대 학자들은 환경의 구성 물질과 건강의 상관관계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여러 과학자들은 환경의 여러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여 그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9세기 전반기 도시의 역병의 발생원인에 대한 가장 유력한 이론으로 간주되었던 ‘미아즈마(miasma) 이론’ 역시 ‘나쁜 공기’를 건강 위해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모렐의 『개론』에서도 여러 열병과 퇴행을 일으키는 늪지대의 특성 및 크레틴병을 유발하는 여러 지질학적 특성과 함께 도시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여러 도시 환경의 특성이 제시되었다.

-맥각병(ergotisme)<sup>51</sup>

기근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중 하나는 바로 맥각병의 유행이었다. 호밀을 장기 보관하게 되면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이런 오염된 호밀로 빵을 만들어 섭취할 경우 맥각(ergot)의 독성에 의한 중독이 빈발하였다고 한다. (Morel, 1857: 220-221)

기근 시기 식량이 부족했기에 오염된 호밀로 만든 빵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맥각병의 초기 증상은 소화불량, 설사, 오심, 의주감(蟻走感: fourmillement) 등이 있었고, 정도가 심해지면 실신, 복통, 언어 장애 등이 발생했으며 질환이 만성화 될 경우 피부 괴사와 근육의 수축과 더불어 여느 독성물질과 비슷하게 다양한 신경계 증상 및 정신적 이상이 생겼다고 한다. (Morel, 1857: 221-237)

-펠라그라(pellagra)<sup>52</sup>


---

<sup>51</sup> 맥각병은 맥각균(ergot)이 생산하는 알칼로이드의 체내 축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장기간 습한 장소에서 보관되어 맥각균에 오염된 호밀의 섭취가 주 원인이다. 맥각중독의 증세가 심해질 경우 정신증과 경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에르고타민(ergotamine)의 혈관 수축 작용으로 인해 신체 말단의 괴사를 일으킬 수 있다.

<sup>52</sup> 펠라그라는 나이아신(niacin, 혹은 비타민 B3)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다. 주로 나이아신과 그 전구체인 트립토판(tryptophan)의 섭취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피부질환이 주된 증상이지만, 정도가 악화될 경우 신경전달체계에 이상을 일으켜 정신적 증상을 유발한다. 펠라그라는 주로 트립토판의 함량이 부족한 옥수수를 단일식량으로 섭취할 경우 주로 발생하였으며, 다양한 음식의 섭취로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이었다. 프랑스의 의사 루셀(Jean-Baptiste Victor Théophile Roussel: 1816-1903)은 옥수수 단독 식이와 펠라그라의 연관성에 대해 제시하였고, 이후 펠라그라의 발병률은 크게 줄어들었다. 모렐의 『개론』에서도 루셀이 수 차례 인용되며, 옥수

펠라그라는 18세기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그 존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시작했고, 주로 스페인 및 이탈리아 북부에서 호발했으나, 1820년대 후반 프랑스에서도 보고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Morel, 1857: 243-247). 다른 물질적 원인과 마찬가지로 모렐은 펠라그라 환자 증례를 제시하는데, 그는 루셀(Jean-Baptiste Victor Théophile Roussel: 1816-1903)이 제시한 브레시아(Brescia)<sup>53</sup>에 거주하는 35세 남성의 증례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했다.<sup>54</sup> 당대 이 지역은 인구 여섯 명 중 한 명 꼴로 펠라그라로 고통받을 만큼 펠라그라가 만연해 있었고, 이 남성의 부모 또한 펠라그라로 사망했다고 한다. 루셀이 지역주민의 식습관을 분석해본 결과, 이들은 옥수수로 만든 빵을 주식으로 삼았으며 고기 혹은 생선을 먹을 기회는 매우 드물었다고 한다. (Morel, 1857: 250-251) 이 환자의 펠라그라 발병 초기에는 소화불량, 피부 발적, 말단부 통증 등의 증상을 보였고, 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피부의 갈변과 어린(魚鱗)화, 현기증, 시야 흐려짐, 조증, 우울증, 자살성향을 보였으며, 말기상태에 이르러서는 날숨과 땀에도 악취가 났으며, 나병, 매독과 유사한 피부 증상이 있었다고 한다. (Morel, 1857: 250-261) 환자가 사망한 후 부검 결과 위 점막은 푸석했으

---

수 단독 식이가 펠라그라의 원인이라고 밝혀 두고 있다. (Morel, 1853: 250-258)

<sup>53</sup>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지방의 도시

<sup>54</sup> Roussel, Théophile, *De la pellagre, de son origine, de ses progrès, de son existence en France, de ses causes et de son traitement curatif et préservatif*. (Paris: 1845) 로부터 모렐이 인용,

모렐은 자신이 1845년 베네치아와 롬바르디아에서 펠라그라 환자를 연구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루셀의 작품이 자신이 확인한 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언급했다. (Morel, 1857: 239)

며(friable), 피부의 상피(epidermis)가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두꺼워졌고, 뇌의 경막(dura mater)과 연막(pia mater)이 뇌에 밀착되어 떨어지지 않아 뇌 위축 소견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뇌실의 액체는 장액과 흡사했으며, 척수가 매우 말랐다고 한다. (Morel, 1857: 262-3)

모렐은 루셀의 가설을 받아들여 펠라그라가 옥수수 단일 식이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증상의 경과와 해부병리학적 소견을 종합해서 펠라그라가 소화관 이상에서 시작하여 병변이 점차 신경계, 피부를 거쳐 신진대사(économie)전체로 영향을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Morel, 1857: 265-6) 모렐은 다양한 세대를 관찰 가능하고, 진행 양상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펠라그라로 인한 퇴행이 산업 독성물질에 의한 경우보다 퇴행의 유전적인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Morel, 1857: 268)

상기된 물질적 원인에 대한 분석은 『개론』의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다. 위 내용에 서 알 수 있듯이 모렐은 단순히 퇴행의 물질적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그 물질의 작용기전 및 신체에 일으키는 증상을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가령 아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모렐은 아편이 어떠한 증상을 일으키는지에 더해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가 어느 지방에서 유래하였고 전통적으로 아편이 어떻게 추출되어 왔는지, 당대의 중국 내 아편 유행 상황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리고 아편이 유럽에 광범위하게 유입되었을 때 어떠한 위험이 예상되는지에 대해 모두 설명했다. (Morel, 1857: 165-168) 비슷한 취지로 펠라그라에

대한 내용을 제시할 때에도 펠라그라가 호발하는 지역과 그 지역의 식문화에 대해 환자의 신체, 정신적 증상 및 신경 해부 결과에 대한 설명만큼이나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Morel, 1857: 237-250) 이러한 종합적 서술을 위해 모렐은 동료 의사, 위생학자, 자연과학자 등 전문가와 더불어 각지에서 발생한 퇴행의 현장을 전해줄 선교사 및 탐험가들의 전언들 역시 상세하게 인용하였다. 이는 퇴행을 일으키는 여러 요인들로 인한 해부병리학적 변화와 임상적 증상에 대한 설명에만 그치지 않고 그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 또한 상세히 밝혀 놓기 위함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렐이 퇴행의 원인 물질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차원을 넘어 집단 전체의 차원에서 문제를 조망하고자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추후 서술하겠지만, 모렐은 이러한 거시적 관점을 통해 퇴행 문제를 사회단위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가 거듭 강조했듯이 퇴행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위생과 예방의 근본을 확실히 하고 그를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를 퇴행의 원인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Morel, 1857: 289)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 제 4 절 퇴행의 도덕적 원인

모렐은 주로 인류 집단 내 문화를 개선하는 방향, 즉, 도덕의 영역을 중심으로 퇴행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는 퇴행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인구집단의 문제인 만큼, 그 집단의 "사회적 환경(milieu social)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

(Morel, 1857: 299)이었다. 앞서 분석한 퇴행의 물질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물질 사용과 관련된 인구집단의 생활환경과 문화를 분석을 통해 찾을 수 있었다. 가령, 직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유독한 물질로 인한 노동자들의 건강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대책은 적절한 환기를 비롯하여 중금속이 사용되는 산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었고, 유럽 내륙지방에서 빈발하는 펠라그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옥수수 이외에도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단일 음식 섭취의 위험을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Morel, 1857: 594-599, 605-611)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알코올로 인한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알코올 소비를 통제할 방안을 마련하고 알코올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 소비를 줄이도록 대중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이러한 집단단위 분석과 문제해결의 중요성은 모렐이 신체적 특성 외에도 개인의 기질, 성향 등 도덕적 특성까지 유전된다는 뷔세의 주장을 수용함에 따라 더 강화된다.<sup>55</sup> (Morel, 1857: 332) 앞서 언급되었듯이 당대 프랑스 의학에서 도덕의 문제는 신체의 문제와 같은 선상에서 받아들여졌고, 집단내 구성원들의 신체적 특성만큼이나 그들의 도덕성 특성 역시 퇴행이 발생하고 유전을 통해 자손에 전달될 수 있었다. 더군다나 모렐은 여러 차례 신경계의 해부학적 이상과 정신 증상의 발현의 연관성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자가 후자를 일으키게 하는 물질적 원인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정신적 요인

---

<sup>55</sup> Buechez, *Essai d' un traité complet de philosophie au point de vue du catholicisme et du progrès*. Paris. 1840, tome III p.546 로부터 모렐이 인용

역시 신경계의 구조에 연관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였다. (Morel, 1857: 322, 333) 모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Morel, 1857: 341)

병변(lésion)이라는 단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영혼의 위생(l'hygiène de l'âme)과 몸의 위생(l'hygiène du corps)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면 의사에게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다. (Morel, 1857: 341)

여기서 ‘병변’은 해부병리학적 의미를 넘어 “지적, 도덕적 차원의 병변(lésions d'un ordre intellectuel et moral)” (Morel, 1857: 331)을 포괄하게 된다. 따라서 의사는 단지 퇴행의 원인으로 인한 개인의 신체적 병변을 넘어 개인과 집단의 도덕적 병변까지 다루어야 했다. (Morel, 1857: 353). 따라서 이러한 개인과 집단의 퇴행을 다루기 위한 연구는 개인이 속한 집단의 문화와 풍습에 대한 인류학적 탐구와 긴밀히 연계되었다.

집단단위에서 퇴행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 역사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의 물질적, 지적, 도덕적 상황을 면밀히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Morel, 1857: 365) 모렐은 집단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적 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스웨덴의 의사 후스(Magnus Huss; 1807-1890)가 조사한 스웨덴의 알코올 중독 실태 현황은 통계



를 퇴행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한 좋은 예가 되었다. 당시 스웨덴에서는 매년 2억 리터 정도의 술을 생산했는데, 인구를 통해 환산해 보면 성인 인구 한 명 당 매년 80-100리터를 섭취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Morel, 1857: 369) 후스는 이러한 만연한 알코올 소비로 인해 스웨덴인의 평균 신장과 근력이 줄어들었음을 지적했으며, 또한 그는 스웨덴인의 수명이 줄고 자살과 범죄가 늘어났음을 통계를 통해 제시했다.<sup>56</sup> (Morel, 1857: 370) 모렐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알코올 음료 외에도 산업시대 새로운 관습(mœurs)들과 위생 환경이 도시민의 건강상태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계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Morel, 1857: 371) 그는 벨기에의 통계학자들 케틀레(Lambert Adolphe Jacques Quetelet; 1796-1874)를 인용하여 통계 수집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케틀레의 견해에 따르면,

주취는 경찰이 주의 깊게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악덕(vice)이다.(……) 주취는 도덕적

해를 유발하고 중을 악화시켜 범죄 등 다른 악덕의 원인이 되므로, 정부는 국민들의

---

<sup>56</sup> 후스에 따르면, 스웨덴의 알코올 섭취가 빈번했던 한 도시에서 1년에 1/33명 꼴로 사망했다고 한다. (1848-1850년 3년 간 3,691명 중 351명 사망) 반면 다른 지역의 평균은 1/49명이었다고 한다. (1845년 1년간 2,389/118,664명)

한편 범죄와 관련해서는 1830년에는 스웨덴의 법정에서 20,034명이 기소되었고 19,574명이 처벌 받았고, 이는 인구비로 따지면 각각 1/115명, 1/145명이었다. 1845년에는 40,468명이 기소되고 35,026명이 처벌받았는데, 이는 인구비로 각각 1/81명, 1/100명에 해당되었다.

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상태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학자들을 우대하여야 한다. (……) [알코올이] 사회에 끼친 여러 해악들을 파악함에 따라, 우리는 우연적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단편적인 사실들(faits isolés)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고, 이는 사회에 대단히 유용할 것이다. (Morel, 1857: 380-381)<sup>57</sup>

즉, 통계적 정보의 수집을 통해 기존에 우연적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들로부터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모렐은 이러한 원인 파악이 법의학, 도덕교육 등 도덕과 관련된 영역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았다. (Morel, 1857: 381)

## 제 5절. 복합 원인(cause mixte) 과 인류학적 탐구

알코올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진 퇴행의 원인이었다면, 특정 지역, 특정 민족에게 한정되어 있는 원인 또한 존재했다. 이러한 원인을 모렐은 3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첫째로는 토양의 지질학적 구성<sup>58</sup> 혹은 늪지대 등의 특정 자연환경이었고, 두번째는 특정

---

<sup>57</sup> Quetelet, A., *Sur l'homme et le développement de ses facultés, ou essai de physique sociale, par le docteur Quetelet, secrétaire perpétuel de l' Académie royale de Bruxelles, etc. Bruxelles, 1836.* Tome II. p.144. 에서 모렐이 인용

<sup>58</sup> 모렐은 토양의 특성을 규토질 토양, 석회질 토양, 점토질 토양, 그리고 늪지대로 구분하였는데, 토양에 따라 물리적 성질과, 식생(植生), 호발하는 질병 등이 다양하다고 보았다. (Morel, 1857:

한 식품의 섭취 혹은 식품 부족에 관한 것이었다.<sup>59</sup> 그리고 세번째로 제시된 원인이 바로 ‘복합 원인(cause mixte)’이었다. (Morel, 1857: 391-394) 앞의 두 원인이 물질적 요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복합 원인은 도덕적 요인과 연관성이 깊은 개념이다. 복합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했을까?

『개론』에서 복합 원인의 개념은 상당히 모호하게 제시된다. 앞서 등장했던 독성물질, 중금속 혹은 자연환경의 문제와 달리 복합 원인은 나쁜 교육 및 생활환경, 부도덕함, 문란함, 신앙심의 부족, 범죄적 성향 등 보다 직접적으로 도덕의 영역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모렐은 일반적으로 종의 퇴행에는 주된 원인(cause prédominante)이 존재하지만, 그와 더불어 많은 경우 복합 원인(cause mixte)이 같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Morel, 1857: 394) 복합 원인이 작용한 여러 예들을 식민지로 이주한 유럽인과 원주민의 퇴행과 관련한 인류학적 탐구를 통해 제시되었다.

모렐은 유럽인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식민지에 가면 퇴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잦았다고 주장한다. 그 전형적인 예는 말라카(Malacca) 해협 인근에 정착한 포르투갈인들이었다. 이 지역에 3, 4세대 이상 정착하면서 그들은 체구가 작아졌을뿐만 아니라,

---

626-635)

<sup>59</sup> 앞서 설명된 펠라그라와 맥각병의 예를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에 더해 모렐은 벼농사와 역병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는데, 벼농사는 인공적 늪지를 만들어 벼를 키우기에, 늪지대에 호발하는 여러 질병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Morel, 1857: 578)

게으르고 지적으로도 둔해졌으며, 또한 도덕적으로 저열해졌다고 한다. 이들 집단에는 문명과 사회체계가 파괴되어 성직자도, 법관도 존재하지 않는 원시사회와 다를 바 없어졌다고 전한다.<sup>60</sup> (Morel, 1857: 413-417). 유럽 원산의 과일이 열대기후에서 잘 자라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이들의 퇴행 역시 기후와 관련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았지만, 모렐은 이들의 퇴행의 주된 원인을 도덕적 요인에서 찾았다.

(……) 나는 우리가 지금껏 너무나 당연히 기후로 인한 결과라고 여겨왔지만, 실제로는 위생과 도덕 법칙의 위배(infraction)로 인한 결과였던 이들 지역의 퇴행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고자 한다. 이러한 위배는,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이론을 그대로 따르자면, 열대기후로 인한 결과보다 인종의 퇴행에 월등히 더 큰 영향을 미친다. (Morel, 1857: 422)

식민지의 포르투갈인과 대비되는 예시로 모렐은 케이프타운의 네덜란드인과 일부르봉(Ile-Bourbon)<sup>61</sup> 섬의 프랑스인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주한지 여러 세대가 지났음에도 도덕적으로 간소하고 근면한 생활을 유지했으며, 또한 독실한 신앙을 유지했다고 한다.

---

<sup>60</sup> D. Yvan. *De France en Chine*. (Paris, 1855)에서 모렐이 인용; 이반(Melchoir Yvan: 1803-1873)은 중국 주재 프랑스 대사관의 의사였다.

<sup>61</sup> 인도양 서부 레위니옹(Réunion) 섬의 과거 명칭

따라서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일부르봉섬에 이주한 다른 인종들이 신체적, 도덕적 퇴행을 겪었던 사실과 대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유럽인들은 물질적, 도덕적 위생을 잘 지켜왔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Morel, 1857: 421-425) 모렐은 특정 인종의 퇴행을 막기 위한 ‘인종간 교배(croisement des races)’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진정으로 퇴행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체적’ 방안에 더해 지적, 도덕적 교육이 잘 결합되어야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았다.<sup>62</sup> (Morel, 1857: 440)

모렐의 도덕위생에 대한 강조는 아프리카 출신 노예와 관련한 예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고향을 떠나 식민지에 노예로 정착한 흑인에게 지적, 도덕적 퇴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식민지의 물질적, 도덕적 환경이 그들이 원래 살던 곳과 다른 경우가 많아 이들의 신체적, 도덕적, 지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새로운 환경에 적응(acclimatiation)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물질적, 도덕적 위생을

---

<sup>62</sup>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모렐은 ‘올바른’ 종교를 가지는 것이 퇴행의 예방에 중요하다고 보았다. 가령 모렐은 아메리카의 아즈텍인들이 문명이나 과학기술에서는 꽤나 뛰어났음에도, 이들의 종교가 인신공양을 권장하는 하는 등 잔혹하고 타락하여 이들의 퇴행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Morel, 1857: 462-463) 또한 그는 에스키모인들의 잘못된 종교관념에 대해서도 지적하는데, 이들은 선교사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신의 존재에 회의적이고 기복신앙에 집착하며, 퇴행적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선교사들의 지속적 노력 끝에 그린란드의 에스키모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 이들에게 문화적, 도덕적 개선이 일어났다고 한다. (Morel, 1857: 468-474) 북아메리카의 체로키족(Cherokee) 또한 유럽의 문화 및 기독교를 수용한 이후 학교, 교회 등 문명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서게 되었고, 따라서 이들의 신체적 상태도 훌륭하게 유지되었다는 자연사학자이자 탐험가 바트람(William Bartram: 1739-1823)의 증언을 소개했다. (Morel, 1857: 476-479)

개선하여 식이 및 교육 수준을 높게 유지했을 경우 이들의 건강상태가 프랑스의 일반적 인 농민보다도 훌륭했다고 지적한다. (Morel, 1857: 431-433)

위와 같은 여러 인류학적 탐구에서 얻은 증거들을 통해 모렐은 인류 집단의 퇴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질적 원인에 더해 집단의 문화적, 관습적 요소로 대표되는 복합 원인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퇴행이론의 기본 골자를 제시할 수 있었다. 이를 모렐은 다음과 같이 종합하고 있다.

개인의 퇴행의 원인에 대한 연구를 종(種)단위로 확대하고자 한다면, 알코올, 아편, 납 등의 독성물질의 병리적 효과를 연구하듯 그 원인의 단독적 작용만을 연구해서는 안 되며, 복합 원인에 의한 변화(modification)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인들의 질서(ordre de causes)에 인류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기후, 관습 등 일반적인 영향을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더해 의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여러 영향들을 포함시킬 것이다. 토양의 지질학적 특성, 주거 환경, 직업 및 산업 조건, 식습관의 해악과 관련된 영향은 많은 개인들에게 제 2의 기후이며, 제2의 본성을 만들어 낸다. (Morel, 1857: 488-9)

## 제 6 절 직업 환경과 도시의 퇴행

퇴행이론이 집단단위의 원인 분석과 그 해결에 집중했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의학에서 활용되던 여러 치료가 대부분 개인의 대중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퇴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렐은 수많은 도시빈민과 노동자들의 퇴행 문제를 고려했을 때 이들을 개인 단위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Morel, 1857: 591, 606) 당대 산업현장의 작업환경과 도시의 거주환경은 도시빈민과 노동자에게 건강을 유지할 물질적, 도덕적 환경을 전혀 제공해주지 못했고, 19세기 내내 이어진 이촌향도(離村向都)의 물결 속에서 도시 거주자들의 건강상태 악화는 프랑스 사회의 큰 문제였다.

위와 같은 19세기 산업화시대의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한 탐구와 그 대책은 위생학자들의 관심분야였기도 했고, 따라서 모렐은 『개론』에서 이들의 선행연구를 적극 인용한다. 가령 영국의 위생학자 채드윅 (Edwin Chadwick: 1800-1890)과 스미스 (Thomas Southwood Smith: 1788-1861)는 도시 곳곳에서 발견되는 고인 물이 늪지대와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열병이 세계 각지에서 풍토병화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거주공간의 협소함과 환기의 어려움은 이를 더 악화시킨다고 보았다.<sup>63</sup> (Morel, 1857: 638-639) 이러한 물질적 환경 문제에 더해 모렐은 복합 원인이 도시빈민과 노동자의 퇴

---

<sup>63</sup> 각각 뉴욕에서는 황열병(yellow fever), 런던에서는 티푸스, 카이로에서는 페스트, 로마에서는 말라리아가 유행했다고 한다. (Morel, 1857 : 640)

행에 미치는 역할을 강조한다.

가공할 만한 강도로 열병이 유행하는 장소는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지하실과 안마당(cour)이었다. 이 곳은 가장 탁하고 습하며, 물이 흘러가기에 가장 나쁜 토양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었다.

말라리아 중독(intoxication paludéenne)<sup>64</sup>과 관련해서 도덕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리학적인 퇴행의 요인만을 연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내가 앞선 인류학적 고려에서 복합 원인이라고 명명한 원인이 유기체에 미치는 병적 현상의 복잡성이 퇴행을 일으키는 특수한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Morel, 1857: 643)

따라서 모렐은 공장 노동자의 지적, 도덕적 현황에 대한 분석 또한 중요하다고 보았고, 그는 비에르메 및 포셰(Léon Joseph Faucher: 1803-1854)<sup>65</sup>의 연구를 바탕으로 아동 노동으로 인한 신체적, 지적, 도덕적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포셰에 따르면 아동 노동자는 5세부터 광산에서 일을 시작한다고 하며, 이들은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유해한 공

---

<sup>64</sup> 당시에는 말라리아의 원인이 기생충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 원인이 환경적 요인에 있다고 추정되었다. 19세기 유럽 도시에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열병은 매우 흔히 발생하였다.

<sup>65</sup>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경제학자였다. 『개론』에서는 그의 저서 *Études sur l'Angleterre* (tome. 1)의 영국 아동노동과 관련된 부분이 주로 인용되었다.



기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햇빛을 볼 기회조차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들의 성장은 또래에 비해 지체된 반면 노화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들의 도덕적 건강은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들 부모의 많은 수는 재산을 부정한 행위에 탕진했고, 따라서 자녀에게 학교와 교회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많은 수는 문맹이었으며,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이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음주 및 흡연 습관을 들였고, 행실은 저열했으며,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잦았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분석한 포세는 비에르메와 마찬가지로 각종 도덕적 비행이 증가하는 주된 원인을 이러한 경제구조의 문제로부터 찾았다. (Morel, 1857: 645-648, 650)

이러한 산업 환경과 거주환경으로 인한 도덕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렐은 우선 산업적 이익이 어느 정도 희생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노동을 인간성을 고취시키는 고귀한 활동으로 보았고, 따라서 노동이 인간성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와 동시에 모렐은 주거환경의 개선 등의 물질적 요소의 개선과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도덕 및 종교 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Morel, 1857: 661) 사회적으로 도덕주의자 및 성직자, 법관, 교육자, 의사가 맡은 역할을 각 가정에서는 아버지 맡아야 하는 것이었다. (Morel, 1857: 662-663) 이러한 방안을 통해 모렐은 "대중의 도덕화(la moralisation des masses)" (Morel, 1857: 686)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

## 제 7 절 인류의 재생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모렐은 퇴행의 물질적 원인에 대한 해결에 더해 도덕적 원인의 해결을 함께 추구하고였고, 이 과정에서 개인보다는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퇴행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는 퇴행의 유전적 특성에 의해 퇴행이 개인을 넘어 집단전체의 문제가 되어 후대에 더욱 악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Morel, 1857: 529-530) 종(種)단위의 퇴행 예방 지속적 관심을 보였던 모렐에게 퇴행의 원인 해결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복귀해가는 과정이었다.

인류 전체의 구원이라는 목표는 『개론』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다. 모렐은 임상의학, 생리학을 비롯하여 철학, 역사학 등 모든 학문이 인류의 번영과 영속을 돕는데 쓰여야 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는 사회를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으며, 시간 그리고 공간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학자들의 저작을 인용하였고, 또한 실험생리학, 해부학, 인류학, 위생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수용하였다. (Morel, 1857: 363)

다양한 퇴행의 원인을 제시하고 그 해결을 추구하는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퇴행’은 당대 프랑스 사회의 신체적, 도덕적 위생의 개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타파되어야 할 대상을 상징하게 된다. 퇴행이론은 비록 퇴행과 일반적인 변이 구별의 불명확성과 복합 원인이라는 개념의 모호함 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로 인

해 이론적 체계성은 부족했지만, 모델이 제시한 여러 물질적, 도덕적 해결책의 시급성을 강조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Coffin, 2003: 35)

하지만 『개론』의 곳곳에 등장하는 모델의 강한 사회개선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위생의 개선을 통한 사회발전을 추구했던 인간과학적 낙관주의는 이 글이 쓰여진 1857년 무렵 프랑스 학계에서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젊은 의사들이 “낙담의 정신에 사로잡혀있으며 (……) 자신들의 힘과 의학-철학적 공부의 필요성을 의심한다” (Morel, 1857: xvii-xviii) 라며 아쉬움을 드러내는 서문(préface)에서의 대목은 이러한 변화를 모델도 직감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과학적 탐구가 인류의 진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의 믿음과는 달리 모델 이후 세대들은 계몽시대부터 이어져 온 인간과학의 이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과 사회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Dowbiggin, 1991: 141)<sup>66</sup> 그리고 그의 퇴행이론 또한 후대 학자들에게는 인간과학의 맥락을 벗어난 방식으로 수용되게 되는데, 20세기로의 전환기 무렵 퇴행과 관련된 담론은 사회의 일부 집단을 낙인찍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Nye, 1984: 141-

---

<sup>66</sup> 프랑스 정신의학계는 사회, 문화적 요인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다시금 정신질환의 해부병리학적 탐구에 천착하게 된다. 1861년 브로카 영역(Broca area)의 발견 및 그에 대응되는 1874년 베르니케 영역(Wernicke area)의 발견 이후 신경계의 구조와 정신작용을 일대일 대응하고자 하는 해부병리학적 국재화(localization)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활발해졌다. 그와 함께 정신병리적 현상에 대한 실험심리학적 탐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증상 중심의 질병분류가 다시 유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위생학에서도 1860년대 이후 파스퇴르(Louis Pasteur)의 세균설 확립을 기점으로 실험과학적 방법론이 주류가 되어 갔다.

144) 결국 인간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학문적 경향은 19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 제 4 장 결 론

모렐은 『개론』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다.

내가 그려낸 계획은 원대하며, 이 계획을 실현하면서 동료들로부터 받아왔던 호의적 반응과는 다른 여러 반대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그려낸 이 길을 끝까지 가기로 결의했다. (……) 나는 퇴행의 원인과 그 치료에 대한 연구가 의사가 매진하기에 가장 중요하고 유용하며, 또한 성과 있는 일일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의사 개개인은 내가 경고했던 악(mal)이 퍼지는 것을 온 힘을 다해 막을 의무가 있으며, 또한 다음과 같은 목표에 대해 완벽히 정의된 프로그램과 함께할 필요가 있다: 인류의 지적, 신체적, 도덕적 개선(Amélioration), 혹은 그 재생(Régénération)<sup>67</sup> (Morel, 1857: 693)

비록 출간되지는 않았지만 모렐은 서문(préface)에서 『신체 및 도덕 위생 (*l'hygiène physique et morale*)』이라는 저서를 구상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Morel, 1857: xviii) 이는 그가 『개론』에서 제시한 퇴행이론을 바탕으로 인류의 신체 및 도덕적 재생

---

<sup>67</sup> 원문에서 대문자로 강조되었다

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음을 드러낸다.

앞서 강조했듯이 『개론』에서 제시된 퇴행이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퇴행의 존재를 명확히 규명하는데 있기보다는 퇴행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실천적으로 해결하는데에 있었다. 모델은 의학, 특히 정신의학의 주된 목표를 환자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치료법에서부터 사회적단위의 위생개선으로 전환시키고자 하였으며, 거시적으로는 인류 전체의 생활환경과 문화를 개선시키는데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나은 인류사회의 구성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인류의 퇴행이라는 일견 비관적인 주제와는 달리 『개론』을 일관하는 모델의 기획은 인간과학을 추동했던 계몽시대의 낙관적 태도와 사회진보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1848년 2월혁명과 그 이후의 혼란으로 대표되는 프랑스 사회의 미래에 대한 회의감은 1850년대 정신의학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개론』의 곳곳에서 언급되는 정신질환 및 범죄의 증가, 그리고 산업화로 인한 노동환경 및 도시 생활환경의 문제는 프랑스 사회 위기의 일면을 드러내었다. 더욱이 19세기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면서 학문적 영역에서도 인간과학의 기획은 그 한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인간의 정신작용은 신체-도덕의 통합적 방법론으로 결코 실증적으로 파악될 수 없음이 드러났고, 잇따른 혁명과 그 혼란은 대중들이 지식인들의 믿음처럼 ‘계몽’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프랑스 2월혁명으로 표출된 도시 노동자의 거센 분노는 도덕적 개선을 통해 노동을 비롯한 산업화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유주의 위생학자들의 기획이 일차적으로 실패하였음을 의미했다. (Renneville, 2017: 14-15) 하지만 이러한 프랑스 사회의 변화

에도 불구하고 1857년의 모델은 아직 물질적, 도덕적 개선을 통한 인류의 재생이라는 인간과학의 목표를 계속 간직하고 있었고, 따라서 『개론』의 구성은 인류 재생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모델이 가졌던 인간과학의 기획과 무관하게 후대 의사들은 퇴행이론을 그 인간과학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활용했다. (Dowbiggin, 1991: 240) 1857년이 이미 인간과학이 쇠퇴하기 시작했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후대 학자들이 『개론』을 관통하는 인간과학적 분위기를 읽어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퇴행이론은 우생학의 관점에서 인간진보의 흐름에서 낙오된 집단을 낙인찍는 데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Dowbiggin, 1857: 1991) 모델의 퇴행이론에서 인간의 ‘재생’은 다만 신이 만들어낸 질서로의 회복일 뿐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인류의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역할이 아니었지만, 진화의 흐름을 인간이 바꿀 수 있고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우생학적 맥락에서 퇴행이론은 인종주의와 결합되었다. 한편 인간과학의 맥락을 벗어난 퇴행이론의 수용은 학문의 실증화, 전문화가 진행되어 여러 학문들이 독립적인 패러다임을 갖추게 된 결과이기도 했다. 인간을 다루는 여러 학문들은 더 이상 인간과학이라는 공통된 이념을 바탕으로 포괄되기 어려웠고, 따라서 후대 학자들은 퇴행이론을 인간과학이라는 본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개별 학문의 패러다임 내에서 수용하게 되었다.

프랑스 정신의학의 역사에서 모델의 퇴행이론은 나름의 족적을 남기는데 성공했지만, 정신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퇴행이론 수용의 맥락이 달라지는 것은 막지 못하였다.

그리고 모렐의 바람과는 달리 퇴행이론은 원인을 통한 정신질환의 분류법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sup>68</sup> 이는 모렐이 퇴행의 모델로 제시한 펠라그라, 크레틴병, 알코올 중독 등의 질병은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신체-도덕의 관계가 중시되었던 인간과학의 맥락에서는 좋은 정신질환의 모델이었지만, 두 요소의 상호관계에 대한 관심이 수그러들었던 19세기 후반기의 전형적인 정신질환은 히스테리로 대표되는 신경증이었기 때문이다. 즉,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이 동반되는 질병들은 정신의학이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정신과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비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신과학 담론의 주변부로 밀려나 버린 것이다. 추후 신경증을 다루는 데 있어 원인 중심의 해결법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기는 했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선행되는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추적일 뿐 환경적, 물질적, 도덕적 위생에서 원인을 찾았던 모렐의 해결책과는 다른 맥락이었다. 퇴행의 또 다른 중심 아이디어였던 퇴행의 유전성에 대한 이론은 19세기 후반 프랑스 정신의학을 지배하다시피 했던 샤르코(Jean-Martin Charcot: 1825-1893)에게 전해지고 그는 퇴행과 그 유전에 대한 개념을 히스테리의 가족력을 설명하는데 즐겨 사용했지만, 이러한 활용 역시 퇴행의 원인 분석과 그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을 추구했던

---

<sup>68</sup> 모렐은 『개론』에서 제시한 원인 중심의 퇴행 분류를 바탕으로 추후 1860년 『정신질환 개론 (Traité des maladies mentales)』의 개정판을 발간했으며, 원인 중심 분류법을 프랑스 정신의학계에 널리 퍼트리려고 하였다. 이는 그가 원인 중심 분류법이 정신질환 대응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았던 까닭이다.



모렐의 퇴행이론과는 궤를 달리했다.<sup>69</sup>

결론적으로 퇴행이론은 인간과학의 기획을 바탕으로 인류의 ‘신체적, 지적, 도덕적 재생’을 추구하고자 했던 모렐의 바람에서 등장한 이론이었다. 퇴행의 개념 그 자체는 비판적인 미래전망을 그려냈지만, 모렐은 퇴행을 해결할 수 있는 물질적, 도덕적 위생을 통한 사회재생의 가능성을 강조했고, 여기에는 18세기 계몽주의자뿐만 아니라 19세기 전반기 위생학자와 사회주의자 역시 공유했던 사회개혁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성사의 역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모렐의 퇴행이론은 인간과학이 그 영향력을 잃어가던 1850년대에 등장하였고 결국 퇴행이론은 후대 학자들에게 본래의 맥락을 잃은 채로 수용되었다. 하지만 퇴행의 담론이 정신의학계, 더 넓게는 사회 전방위적으로 폭넓게 다루어졌다는 점은 분명 이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흡인력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그것이 모렐이 원한 방식이 아니었다고 해도 말이다.

---

<sup>69</sup> 샤르코의 정신의학과 퇴행이론의 유전적 특성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Walusinski, Olivier, “The concepts of heredity and degeneration in the work of Jean-Martin Charcot,”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Neurosciences*, 29 (2020), pp. 299-324.를 참조할 것

## 참고문헌

### [1차문헌]

Morel, Bénédict A., *Traité des dégénérescences physiques, intellectuelles et morales de l'espèce humaine et des causes qui produisent ces variétés malades*. (Paris: J. -B. Baillière, 1857).

Morel, Bénédict A., *Traité des maladies mentales*, 2<sup>nd</sup> ed. (Paris: V. Masson, 1860)

Buchez, Phipippe -J. B., "Rapport fait à la société médico-psychologique sur le Traité des dégénérescences physiques, intellectuelles et morales de l'espèce humaine et des causes qui les produisent, par le docteur- B. -A. Morel," *Annales médico-psychologiques*, 3 (1857), pp. 455-467

Griesinger, Wilhelm, *Die Pathologie und Therapie der psychischen Krankheiten*, 3<sup>e</sup> Auflage (Stuttgart: Verlag von Friedrich Wreden, 1871).

Motet, M., "Eloge de Morel - Séance générale annuelle du 27 avril 1874. - Présidence de M. Ch. Loiseau," *Annales médico-psychologiques*, 12 (1874), pp. 85-108

"Prospectus," *Annales d'Hygiène Publique et de Médecine Légale*, 1 (1829), pp. v-viii

### [단행본]

Ackerknecht, Erwin H., *Medicine at the Paris hospital: 1794-1848* (Baltimore, MA: Johns Hopkins Press, 1967).

Coffin, Jean-Christophe, *La transmission de la folie: 1850-1914* (Paris: Éditions L'Harmattan, 2003).

Coleman, William, *Death is a social disease: public health and political economy in early industrial France*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2).

Dowbiggin, Ian, *Inheriting Madness: professionalization and psychiatric knowledge in nineteenth century Franc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Goldstein, Jan, *Console and classify: the French psychiatric profess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Goldstein, Jan, *The post-revolutionary self: politics and psyche in France: 1750-185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Hacking, Ian, *The taming of ch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Hacking, Ian, "Ch.9 How should we do the history of statistics?," Burchell, G., Gordon, C., and Miller, P.,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La Berge, Ann F., *Mission and method: The early nineteenth-century French public health move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Müller-Wille, Staffan and Rheinberger, Hans-Jörg, *A cultural history of hered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Nye, Robert A., *Crime, madness and politics in modern France: The medical concept of national declin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ick, Daniel, *Faces of degeneration: A European disorder, c. 1848-191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Quinlan, Sean M., *The great nation in decline: sex, modernity and health crises in Revolutionary France c. 1750-1850*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7).

Reed, Edward S., "Ch.11 The Separation of psychology from philosophy: Studies in the sciences of mind 1815-1879," C. L. Ten ed., *Routledge History of Philosophy Volume 7: The Nineteenth Centu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4).

Schweber, Libby, *Disciplining statistics: demography and vital statistics in France and England, 1830-55*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6).

Williams, Elizabeth A., *The physical and the moral: anthropology, physiology, and philosophical medicine in France, 1750-18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논문]

Bynum, William F., "Alcoholism and degeneration in 19<sup>th</sup> century European medicine and sychiatry,"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79 (1984), pp. 59-70.

Carbonel, Frédéric., "L'idéologie aliéniste du Dr. B.A. Morel : christianisme social et médecine sociale, milieu et dégénérescence, psychiatrie et régénération. Partie I," *Annale Médico-Psychologique*, 168 (2010), pp. 666-671.

Carbonel, Frédéric., "L'idéologie aliéniste du Dr. B.A. Morel : christianisme social et médecine sociale, milieu et dégénérescence, psychiatrie et régénération. Partie I," *Annale Médico-Psychologique*, 168 (2010), pp. 672-679.

Coffin, Jean-Christophe, "L'hérédité et la médecine mentale française au XIXe siècle," *Ethnologie française*, 24 (1994), pp. 70-80.

Hunt, Alan and Rimke, Heidi, "From sinners to degenerates: the medicalization of morality in the 19th century,"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15 (2002), pp. 59-88.

Jacyna, Leon Stephan, "Medical science and moral science: the cultural relations of physiology in Restoration France," *History of Science* 25 (1987), pp.111-146.

Liégeois, Axel, "Hidden philosophy and theology in Morel's theory of degeneration and nosology," *History of Psychiatry* 2 (1991), pp. 419-427.

López-Beltrán, Carlos, "In the cradle of heredity: French physicians and *l'hérédité naturelle* in the early 19<sup>th</sup> century," *Journal of the History of Biology* 37 (2004), pp. 39-72.

Quinlan, Sean M., "Inheriting vice, acquiring virtue: hereditary disease and moral hygiene in the medicine of the French Enlightenment,"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80 (2006), pp.649-675.

Renneville, Marc, "De la régénération à la dégénérescence. La science de l'homme face à 1848," *Revue d'Histoire du XIXe Siècle* 15 (1997), pp. 7-19.

Rosen, George, "The fate of the concept of medical police 1780-1890," *Centaurus* 5 (1957), pp. 97-113.

Walusinski, Olivier, "The concepts of heredity and degeneration in the work of Jean-Martin Charcot,"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Neurosciences*, 29 (2020), pp. 299-324.

## Abstract

# Bénédict A. Morel (1809–1973)'s Degeneration Theory and the Project of Human Science

문기엽(MOON Gieop)

인문의학전공(History of Medicine & Medical Humanit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llectual background behind B. A. Morel's degeneration theory and thereby grasping the practical side of it. The theory argues that the principal causes of mental diseases are degeneration, whose symptoms irreversibly aggravat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Morel claims in his principal work, *Treatise on physical, intellectual and moral degeneration of the human species and upon the causes which produce these morbid varieties. (1857)*, that by identifying several agents causing degeneration, one can establish nosologic criteria, which could be used to differentiate mental diseases and to prevent them on a social level. One of his original ideas is 'mixed causes', which encompass several physical and moral hygienic problems of the industrializing and urbanizing French society.

This study illustrates that the degeneration theory worked not only as means to explain the early 19th century social issues in France, but also as a way to incite societal change and to seek the physical, intellectual and moral regeneration of the

entire human race. Morel's objective can be compared with other physicians such as social Christian doctors and hygienists of the same era, who were also passionate in guiding the French society with revolutionary zeal. They were a part of the 'human science' tradition, stemming from Enlightenment scholars whose main aim was the construction of ideal society by enlightening the people. Although the aftermath of 1848 revolution made French society somewhat pessimistic about its future, one can still find in Morel's degeneration theory the remnants of optimism which started from the Enlightenment period.

**Keywords :** Morel, Degeneration, Degeneration theory, Human Science, Hygienics

**Student Number :** 2018-29860